

3
2021

VOL. 297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ARE YOU
READY FOR
TOMORROW

?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내일에 투자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가 함께 합니다



S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Treasury Tower 27F, District 8 Kawasan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T. 021-5010-5800 | Korea Desk 021-2078-5877

For a Remarkable Life

Meet the all-new PALISADE



2열 캡틴시트 / 퀴팅 나파가죽 시트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전자식 AWD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 험로 주행 모드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reddot award 2019
winner car design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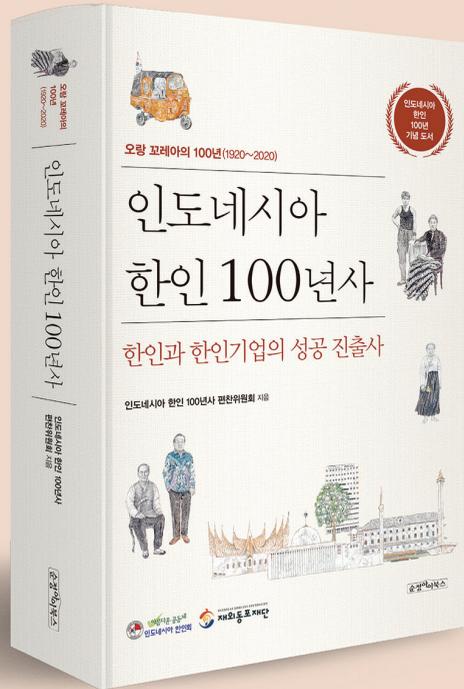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기업의 역사와 성공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양장본 · 판형 163×235 쪽수 512

적도에서 펼쳐진 한인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의 역사! 열정 그리고 꿈!



· 인도네시아에 대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역사 사용서 ·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진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다.

-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개척 도전사와 '산업별 한인기업 50년사(史)' 총망라
- ★ '오랑 꼬레아'가 인도네시아 땅에 새긴 특별한 삶의 현장 보고서

순정아이북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께는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책자 요청시 무료로 드립니다.
연락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 1960 308 (지역에 따라 배송비 개인부담)



JAKARTA, SIMPRUG
2020. 2

contents

2021. 3. 통권 297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15 - 까치 까치 설날 <황유경>
- 0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파란불'
- 10 이코노미 인사이드 - 좀비 전성시대 <황준규>
- 1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9 - 반란의 시대
- 16 잉포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극복기 <엄순금>
- 20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 24 두 개의 시선 - 윈드 차임 <헬렌>
- 26 나 바 수 <민선희>
- 30 자주 묻는 민원 Q & A
- 33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대통령표창 수상
- 34 자카르타 맛집탐방 - ORASA'S <주윤지>
- 36 아동심리치료사의 세계 2 - 장세라 편
- 40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43 VOC 조선소와 주변 건물들 <정윤희>
- 46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고인류 - 호모에렉투스 <유은규>
- 48 형태냐 기능이야 <최범>
- 5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의와 도덕 <최재원>
- 52 행복에세이 - 황톳길의 기억 <하연수>
- 55 겨울 소나무 <김우재>
-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295) <이승민>
- 58 온 누리에 가득 찬 빛 <남찬빛>
- 61 WE ARE STARS <편집국>
- 63 Pancoran 사람들 No. 26 <편집국>
- 66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3 2021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까지까지 싱글로

이쯤되면 가족이지..
고달픈 타향살이
이렇게 또 버팁니다.....

4,324 km 떨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 시속 600 km로 7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과 자카르타공항에 발을 디는 순간, 시작되는 조금은 다른 삶. 익숙한 한국의 일상과 이색적인 인도네시아 생활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유는 '참 좋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다. 타국에서 보내는 서글픈 명절이 익숙해졌지만, 올해는 담 하나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지내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마음도 나누고 새해를 맞는 설렘도 같이 느껴보았다.



팔이 쭉 나오고 치마 기장도
강충 짧아진 한복들을
보며 '내 새끼들 코로나
속에서도 쭉쭉 컸구나'
칭찬도 하고 한복패션쇼도
열어보았다. 오랜만에 스마트폰
게임이 아닌 윗놀이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대동단결 되고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을 모아 잔칫집 버금가는 한 상 차려
야무지게 먹으며 새해에는 큰 소원이 아닌
소소했던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소망을
한마음으로 빌어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파란불’



논설위원 신성철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으로 침체됐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산업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K-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선진화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두드러짐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사태 이전에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은 다소 답보 상태에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제약·바이오 등 미래산업은 존재감이 약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방역체계를 구축한 K-방역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은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두각을 나타냈고, 한국의 강점을 인지한 인도네시아는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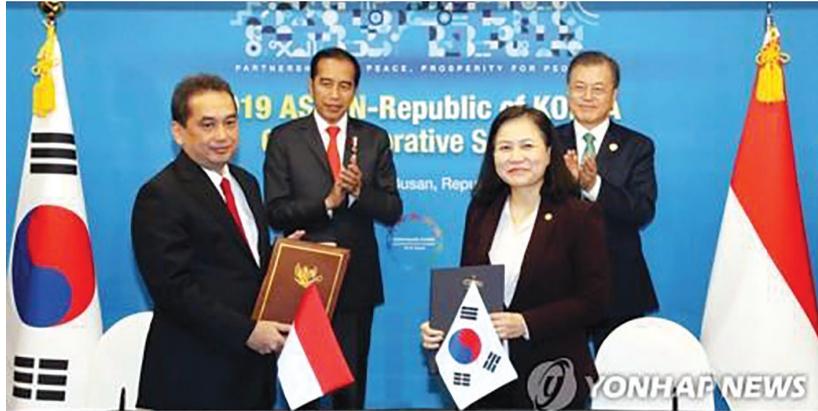
2019년 12월 1일 첫 삽을 뜬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오는 4월에 준공해 5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 12월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자바주 버까시 지역 델타마스공단에 동남아 첫 완성차 공장 완공을 앞둔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고, 이어 일본차 보다 기술력에서 앞선 전기차를 생산해 일본차가 앞도적으로 우위를 점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 도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현대차 진

출에 우호적이다. ‘동남아 전기차 허브’를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현대차가 생산할 계획인 전기차의 특별소비세(사치세)를 0%로 해 도요타 등 일본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하이브리드차와 차이를 벌리도록 정부 규정을 개정했다.

작년 12월 한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과 인도네시아가 2차전지(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극재 핵심 재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측은 방한 기간 중 세계적인 2차전지 생산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산업 투자 협약 체결을 강력히 희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산 채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등을 위한 공동 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년 프로젝트에 LG 측의 투자 금액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반뜰주 쥘레군에 총 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2018년 12월 기공해 이곳에 납사크래커(NCC)와 휘발유 등 석유 완제품을 만드는 하류 부문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인도네시아가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2019년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16개 외국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은 “16개 외국계 기업이 지난해 공장 건설 또는 생산을 시작했다” 며 “이들 업체들이 총 미화 71억5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해 약 6만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바흐릴 청장은 이어 2018~2019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여러 외국인 업체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기업의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KCC글라스와 LG에너지솔루션, 독일 파이프 제조사 바빈 등이 중부자바주 바땅 산업단지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제조사 존슨앤존슨도 투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에너지산업에 큰 혁명을 불러왔다. 19세기의 주요 에너지는 석탄, 20세기 석유에 이어 21세기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은 효율성, 주행거리 등 성능이 우수하고 배터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후변화대응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디지털뉴딜 분야인 K-뉴딜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래산업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세계 최대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날씨에 따라 꾸준히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에너지저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 분야도 협력할 분야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아세안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작년 11월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한국-인도네시아는 작년 12월 18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특히 한국기업은 CEPA를 통해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로 진출 영역을 넓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한·중·일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과 자본을 앞세운 일본과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를 표방하며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에 밀려 우리나라는 다소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한때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였던 일본은 노쇠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다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좀비(Zombie) 전성시대]

- 저금리 처방의 부작용, 유동성합정과 좀비기업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몇 해 전 주말, 가족들과 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옆 테이블의 인도네시아 가족을 보고 소스라쳤던 적이 있다. 부모와 두 자녀, 네 명의 가족 모두, 주문 후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고개 한번 들지 않고 각자의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물론 외식 중 오고 가는 가족 간의 소소한 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스마트폰에 홀린 것처럼 엄지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누르고 있는 광경은 마치 스마트폰으로부터 실시간 지령을 받고 그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흡사 모두가 스마트폰에 혼을 빼앗긴 좀비들 같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스마트폰 좀비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보다도 전염성이 강했던 듯하다. 왜냐하면 앞서 묘사한 가족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으며 가끔 우리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좀비가 되어 버렸다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다.

한편 좀비는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었는데 2016년 천만 관객을 불러모았던 ‘부산행’을 시작으로 영화 ‘반도’, ‘살아있다’와 더불어 드라마 ‘킹덤’, ‘스위트홈’ 등이 연달아 흥행은 물론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며 한국형 좀비는 주요한 K-컨텐츠가 되었다. 마치 80~90년대를 풍미한 홍콩영화 주요 소재였던 중국형 좀비, 강시처럼 말이다.

그리고, 최근 몇년간 늘어난 스마트폰 좀비족과 더불어 한국형 좀비에 버금갈 만큼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 좀비가 있다. 바로 좀비 기업이다. 울들어 미국에서는 투기등급 회사채인 이른 바, 정크본드 중에서도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에 까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 움직인 결과로 해석되는데 평소 같으면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회사채까지 돈이 몰리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베팅’ 하는 심정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이어지는 경우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좀비기업은 결과적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사들은 물론 이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던 금융기관들까지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우려는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기업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생존을 위해 저가의 제품을 마구 찍어낸다는데 있다. 이는 가격 왜곡을 불러일으키며 산업전반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멸절하던 경쟁사의 생존 또한 위협할 수 있다.

좀비기업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품 경제의 붕괴 이후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10년이 넘는 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에 머물렀다. 버블이 붕괴되자 일본 정부는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실직을 우려한 정부와 채권단은 이들 좀비기업에 각종 금융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 결국 그 자금은 고스란히 부실채권으로 되돌아왔다. 문제는 늘어난 부실채권으로 은행은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며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또한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게 되며 투자가 위축되고 우량기업이 결국 경영난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바로 멸절한 사람을 물어 전염시키며 같은 좀비로 만든다는 K-컨텐츠 속 한국형 좀비의 모습과 닮아 있다.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이 퇴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산업생태계의 신진대사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무작정 연명시키기 보다는 퇴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물론 자생력이 있고 기술력과 영업력이 있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단기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

해서 자생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무작정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겨우 연명만 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설득력있게 들린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경기침체라는 진단에 저금리라는 처방은 항상 옳기만 한 걸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소비와 투자는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격만 오르는 경우 버블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 속도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대출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위한 대출’ 이 아니라 주로 ‘당장 망하지 않고 버티기 위한 대출’ 이 많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자산가격의 버블과 과도한 대출증가가 촉발했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하다. 은행에 근무하며 당시 하루에도 원달러 환율이 200원씩 오르내리자 환헷지에 실패하고 이에 더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마저 중단되며 결국엔 쓰러져 가던 기업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불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할 시점이다.





1958년 2월 15일 PRRI 각료들. 왼쪽부터 달란 잠백 대령, 부르하루딘 하라합, 아흐맛 후세인 중령, 샤리푸딘 브라우라느가라, 말루딘 심볼론 대령

지난 호에 이어

황소위원회가 조직된 지 이틀 후인 1956년 12월 22일, 제1 지역군 부깃바리산 부대 사령관 말루딘 심볼론 대령은 메단에 코끼리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하면서 주안다 총리의 정권으로부터의 분리와 관할지역의 전쟁위험상태(SOB)를 선포했다. 너무 나가버린 것이다. 당연히 중앙정부는 이번엔 가만있지 않았다. 즉시 강경대응에 나선 육군사령관 나수티온 장군은 심볼론 대령을 해임하고 차민 긴명 중령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남부 수마트라의 발리안 중령이 가루다 위원회를 조직하고 술라웨시의 펜체 수무알 중령은 부엉이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반란조짐이 뒤를 이었으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수티온은 1957년 12월 지역쿠데타를 유도해 우선 심볼론과 발리안을 축출했던 것이다.

황소위원회의 요구사항 일부를 들어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주의체제, 중앙과 지방의 공정한 예산분배, 주안다 총리의 퇴진, 출신배경을 배제한 직능중심의 내각구성, 대통령의 헌법준수 같은 사안들에 대해선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황소위원회는 중부 수마트라의 지방세수입을 더 이상 중앙정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방발전용도의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뿐 아니라 황소위원회는 중부 수마트라의 생산품들을 이용해 외국과 바터무역을 시작했고 그 소득 역시 지방발전을 위해 지출되었는데 그렇게 한지 불과 수개월만에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 중부 수마트라는 당시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가장 빠른 발전상을 보였다. 중부 수마트라는 그 선례를 따르려는 다른 지역들에게는 모범사례가 되었지

만 중앙정부와는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치달렸다. 독립전쟁이 끝난 후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국가재건에 대한 체감도와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와 지방, 특히 자바섬을 벗어난 지역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수카르노의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나 예산배정에 형평성도 미흡한 상태에서 외곽지방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심각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막을 올리는 PRRI 사건은 곧이어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빠르메스타 사건과 함께 국제정치상황과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케예스 비치 기자는 “미국만 아니었다면 없었을”(Not without the Americans)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1957년 미국이 빠당으로 무기를 공급하던 상황을 그렸다. 중장비와 건설자재를 싣은 미국상선이 빠당항에서 다음 기항지인 태국의 항구에서 태국군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던 일단의 무기들을 아흐맛 후세인 대령의 명령으로 모조리 압수하는 방식으로 PRRI 반군들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책임회피를 위한 뒷문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빠르메스타의 수무알 대령은 대놓고 마닐라까지 가서 미국 무기를 반란 지역으로 들여오려고도 했다. 미국이 반군과 손잡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던 냉전체제 속에서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점점 공산진영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분명한 반공노선을 보인 PRRI-빠르메스타 반군에게 은밀히 보증을 들어놓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외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둘스는 1957년 엘리슨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명료한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수카르노가 공산당과 엮이게 놔두지 마시오. 그가 네덜란드에게 무력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시오. 극단주의자들의 등을 밀어주지도 마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석유자원이 풍부한 수

마트라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러한 혼란상황에서 수카르노가 1958년 1월, 6주간의 해외순방길에 나선 사이 1958년 2월 10일 중부 수마트라의 빠당에서 아흐맛 후세인 대령이 중앙정부에게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그 최후통첩은 “국가보전을 위한 투쟁현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주안다 총리의 내각퇴진, 수카르노가 의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명목상 대통령 역할로의 회귀, 공산당 배제를 전제조건으로 한 하타와 술탄 하멩꾸부워노 9세 중심의 직능내각구성과 이때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역할과 능력에 방점을 둔 각료선발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주안다 총리는 반란세력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나수티온은 아흐맛 후세인, 심블론, 잠백 등을 즉시 군에서 제명하고 ‘대통령 시해시도와 무력에 의한 국가전복’이라는 뜬금없는 혐의로 체포령을 내렸다.

1957년 11월 30일 중부 자카르타 찌끼니 지역의 한 학교를 방문하던 수카르노에게 수류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있었다. 빠르쩍(Percik) 또는 찌끼니 교원학교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아직도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유서깊은 학교이고 메가와띠도 이 학교의 동문이다. 당시 여기서 암살를 시도한 자들은 분명 다룰이슬람 반군들이었고 학생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수카르노는 생채기 하나 없이 무사했다. 하지만 격노한 수카르노는 다룰이슬람의 즉각 진압을 촉구했는데 나수티온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이 사건에 PRRI 반란군도 연루시킨 것이다.

최후통첩 기한이 지나자 1958년 2월 15일 빠당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혁명정부(Pemerintahan Revolusioner Republik Indonesia-PRRI)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그러자 북부 술라웨시와 중부 술라웨시는 이를 후인 2월 17일 PRRI 지지를 선언했다. 군이 장악한 외곽 지역들이 현 정권에게



디포네고로 사단 마크



브라위자야 사단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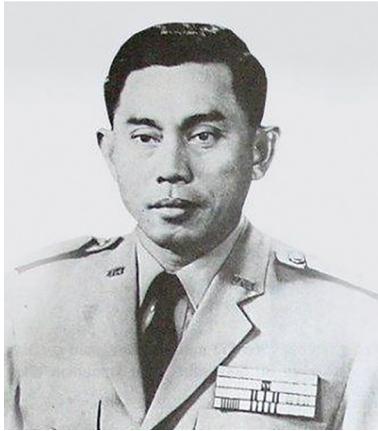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공군 엠블렘

연이어 반기를 든 것이다. PRRI는 과거 독립전쟁 당시 부깃명기에서 공화국 긴급정부(PDRI)의 수반을 지냈던 샤리푸딘 뿌라위라느가라를 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추대했고 북부 수마트라 지역사령관이었던 말루딘 심볼론 대령을 외무장관에, 미나하사 지역출신의 야심만만한 읍 와로우를 건설 부장관에 포진시키는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제법 짜임새 있는 내각을 구성했다. 외견상 수까르노 대통령에게 감정이 없지만 주안다 내각을 물리치고 대신 PRRI 내각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모양새를 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란의 딱지가 감추어지지는 않았다. 하타는 반란정부 수립 소식에 크게 실망했고 수미트로 죠요하디꾸 수모, 부르하누딘 하라합, 샤리푸딘 뿌라위라느가라, 심볼론, 까윌라랑 같은 저명한 인사들이 반란정부로 전향했다는 사실에 더욱 상심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쇄도한 무기공급 제안은 반란정부의 사기를 더욱 고무시켰다. 그들은 외국,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준다면 굳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정부군을 물러서게 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정부군 측의 나수티온과 아흐맛 야니는 녹록치 않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황소위원회가 처음 중앙정부에 도발해 올 당시만 해도 군사적 해결을 주저했던 나수티온은 PRRI의 명백한 반란으로 발전하자 더 이상 주저

하지 않고 칼을 뽑아 들었다. 서방국가들의 연루 사실은 진압군의 주력을 이룬 디포네고로 사단, 브라위자야 사단과 공군에게 오히려 더욱 분명한 반란분쇄의 사명감을 드높였다.

나수티온은 1955년 당시 자신을 육군사령관으로 복귀시킨 부르하누딘 하라합 전총리가 이제 PRRI 반란군 쪽에 서있다는 것이 내심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는 자신에게 은인인 셈이었으므로 그가 속한 PRRI를 더욱 깃뎀아 수까르노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다. 또한 정보사령관 줄키펠리 루비스 대령을 비롯해 몇몇 요직의 육군장교들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심증도 강했다. 1957년 10월 3일 반란군의 수무알 대령, 발리안대령, 아흐맛 후세인 대령 등이 서명한 ‘기본적, 교도적 지방투쟁의 합동 프로그램’은 육군사령관인 자신의 교체와 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줄키펠리 루비스가 과연 그 부분에 있어 어느 편에 서있는지 석연치 않았다. PETA 출신인 루비스는 의용군 출신 밤방 우또요 소장이 육군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휘하 장교들을 동원해 부임을 저지하는 막무가내식 사보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었다. 하물며 나수티온 자신은 KNIL 출신이었고 PRRI와 빠르메스타의 반란군 고위장교들도 대부분 KNIL 출신이었다. 부사령관 루비스가 등 뒤에 비수를 숨기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수티온을 엮어 넣을 수 있



신하군을 연상시키는 아흐맛 야니 대령

을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이 PRRI를 더욱 짓밟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 나수티온은 제7 지역군 사령관 가똏 수브로또 대령이 1952년 10월 17일 사태 당시 자신의 참모장 와로우 중령에게 체포되었던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반대로 북부 수마트라 아찌 출신인 루비스가 PRRI에 대해 내심 동조하는 있을 지도 몰랐다. 그 어떤 경우에도 루비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등에 총을 겨눌 지 모를 일이었다.

지근거리의 잠재적 적들로부터 자신과 정부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거대한 적이 등장해 좋은 싫든 내부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PRRI와의 몇 차례 협상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중앙정부는 대규모 병력을 보내 반란 지역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려 했고 나수티온은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수티온은 아흐맛 야니를 '8월 17일 작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시켰다.

이 작전은 인도네시아군 합동작전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는데 군함 6척과 수송선 19척이 동원되어 6,500명의 병력을 수마트라로 실어 날랐고 그중엔 디포네고로 사단과 브라위자야 사단의 보병부대들은 물론 해군소속 해병대 1개 대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온갖 반란진압작전에 동원되었던 실리왕이 사단은 이번만큼은 참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편에서 독립전쟁을 치러온 수마트라의 동료들에게 차마 총을 겨눌 수 없었던 것이다.

미대사관 무관이자 야니의 절친이었던 조지 벤슨은 한 밤 중에 빠당 지역의 미군지도를 요청하는 야니의 전화에 지도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야니와 동료장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당해방작전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야니는 의도적으로 육군사령부를 피해 람방 거리의 자택에서 즐겨 작전회의를 했는데 이는 육군사령부가 오히려 보안에 취약해 대부분의 작전정보들이 반란군 측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니는 누출된 정보를 토대로 빠당의 반란군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반란군은 방어선에 죽창형태의 지뢰들을 공중에서 흩뿌렸고 해안과 언덕들은 언제라도 박격포로 포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바유르만에도 상륙방해를 위한 수중장애물이 설치되었고 해변엔 지뢰가 깔렸다. 더욱이 4천 명 규모의 PRRI의 정규병력 외에도 수천 명의 청년군 지원자들이 줄을 서 지원 즉시 화기를 지급받아 훈련을 시작했다. PRRI의 방어선은 사기가 높았고 일견 매우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꼭 보이는 바대로만은 아니었다. 1958년 4월 16일 함포사격으로 공격을 개시한 정부군이 4월 17일 육해공 합동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하자 PRRI의 방어선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란군은 의미있는 저항을 하지 못했으므로 8월17일작전의 점령군은 사령부 참모들까지 모두 그날 점심 경 빠당시내에 진입했고 날이 저물기 전 반란군 수도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반군 잔당들은 부깃땡기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 작전으로 정부군은 983명의 전사자와 1,695명의 부상자를 낸 반면 반군측의 인명피해는 6,373명이 전사, 1,201명이 부상했고 6,057명이 투항했다. 정부군의 압승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양꼬부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기

염순금(땅그랑거주)

겠다고 나간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자카르타 시내의 한국계 병원의 항원(Rapid Test Antigen)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약을 처방받았으며 S병원에 가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니 준비하라고.

드라이버 스루로 진행되는 S병원의 선별진료소에 도착했다. 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이 벌써 길게 늘어섰다. 의료진이 내민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적고 결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24시간 이내) ‘골드 패키지’를 선택했다. 1인당 2.5jt를 결제했다. 신분증 요구에 그이는 SIM(운전면허증)을 내밀었는데 그게 문제였다. SIM이 외국인의 신분증으로 아직 공식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의료진과 작은 실랑이 끝에 겨우 신분확인 절차가 끝났다. 검사를 기다리는 중에 밀집접촉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데, 비난 대신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다. ‘혹시’라는 마음으로 불안할 텐데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지인들의 문자가 큰 힘이 된다.



자가격리 3일 전

이상하다.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 있던 그이가 통기운이 없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말에 체온을 측정했다. 36.5도, 정상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세상에서 불안함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이가 약간의 콧물과 근육통을 호소한다.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한 식탁에 앉았지만, 서로 알고 지낸 수십 년의 시간을 통틀어 지금보다 그이가 멀게 느껴진 적이 있던가.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외면한 채, 식탁 가장자리에서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인다. 자꾸 창밖으로 시선이 간다. 먼 산 보듯 서로를 대하는 식사가 끝난 뒤, 그이는 일찌감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작은방에 누웠다.

- 벌써 늡게요?

- 감기약과 항생제를 먹고 땀을 빼야 낫지.

평소 그이가 감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날부터 자연스레 따로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자가격리 1일 전

증상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검사 절차를 알아보

자가격리 1일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 Negative(음성) 결과지를 받은 나와 달리 그이는 Positive(양성) 판정을 받았다. 어수선한 시국에서는 긍정적(positive)이란 말이 달갑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여러 질문에 답하며 감염 가능성이 있을 법한 일들에 하나씩 가위표를 해 나가지만 ‘딱 이거다’라는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검사하고 마음을



줄이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는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며 검사결과를 알렸다. 그이의 확진 판정을 알게 된 지인들 대부분은 한국행을 권했다. 한국과 달리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인도네시아의 낙후된 의료시스템과 안일한 대처 방안, 혹여라도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병원비 등.

한국행을 택하는 쪽이 현명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확진된 사실을 숨긴 채 비행기를 탄다는 죄책감 역시 발목을 붙들었다. 동전에 양면이 존재하듯,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기로 했다. 50대 후반인 그이의 나이가 좀 걸렸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호흡기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점이 위안이 되었다. 불안과 두려움, 희망을 동시에 안고 자가격리를 통해 현지에서 코로나19를 이겨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이의 거처는 동향으로 난 큰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안방으로 정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안성맞춤이다. 빛이 코로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냐만,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한 줄기 빛도 희망이 된다. 내 침실이 될 작은방은 환기를 시키고 침구류는 세탁해서 널고 소독제를 마구마구 뿌려 놓았다. 그리고, 서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러는 사이 친한 언니의 사랑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일회용 장갑과 꿀에 절인 생강차, 페이스설프, 언니의 마음이 붉게 농축된 홍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더 잘 알려진 텍사메타손이란 약도 그이의 친구를 통해 전달받았다. 가슴이 울컥해진다.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간 우리 내외는 카톡과 전화로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스크 위에 페이스설프를 쓰고 2미터 이상 떨어져서 대화를 나누었다.

자가격리 2일

미열이 있고 콧물이 조금 났으며 가끔 기침과 재



채기를 하던 수준에서 복통과 설사가 추가되었다. 근육통도 조금 심해졌다. 정확한 성분은 모르는 채 그이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항생제를 챙겨 먹었다.

- 재택근무 덕에 출퇴근 시간을 아껴 스마트폰으로 바둑을 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네.

그이의 메시지에 피식 웃음이 났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꿀 생강차를 마셨다. 식사는 평소대로 하며 식후에 비타민C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끓인 보리차를 수시로 마시며 저녁에는 홍삼차를 마셨다. 식기는 따로 사용 후, 팔팔 끓여 소독했다. 세탁도 분리해서 하며 마지막 행굴 때 락스를 조금 넣었다. 침구류에는 자주 소독제를 뿌리고 수시로 햇볕을 쬐었다. 이제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약속했다. KF 마스크류는 숨쉬기가 힘들어서 덴탈마스크로 바꾸었다.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 볼까 생각하다가 이내 생각을 접었다. 게딱지 같은 방에서 혼자 견뎌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자괴감까지 없고 싶지는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삼시 세끼를 준비하고 씻고 소독하다 보면 하루가 저문다. 동동거리다 밤늦게 침대에 몸을 눕히면 오만가지 생각이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지만 어느새 까무룩 잠이 든다.

자가격리 3일

바틱 반바지 밑으로 나온 맨다리가 싸늘하다. 긴 바지를 꺼내 입었다. 체온은 37도. 갱년기 증상인가? 우기라서? 감기가 오려나? 아니면 나도 코로나에 감염된 걸까? 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오그라든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내 남자도 걸린 코로나가 과연 허한 내 육신은 피해갔을까? 결국 나도 감기약과 항생제를 먹었다.

달그락거리며 그릇을 닦는데 하필 주방세제가 바닥났다. 안방 세면대 밑에 여유분이 있으려나. 그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없다는 그이와 잘 찾아보라는 나의 말이 충돌한다. 못 믿겠으면 들어와 찾아보라며 통을 주는 그이의 말에 선뜻 발이 떨

어지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섀드를 착용했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한다. 다시 일회용 장갑을 끼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떠나 있던 우리 둘의 공간이 하염없이 낯설다. 기어코 찬장을 뒤져보았지만, 세제는 나오지 않았다. 그 많던 세제를 언제 다 썼을까. 쟁걸음으로 거실로 나와 방문을 닫자마자 소독제를 온몸에 마구 뿌렸다. 너무 많이 뿌린 탓인지 기침이 나왔다.

저녁에 지인이 도우미 편에 음식을 보내왔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박탁 소리가 한없이 반갑다. 중무장을 한 채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는 도우미의 뒷모습에 마음이 씩씩하다. 당연한 행동이지만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 세제를 찾는다며 나도 그이에게 등을 보였었지. 그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저릿하다.

자가격리 4일



- 오늘따라 간이 약한가? 국이 핑핑하네.

아침을 먹으면서 그이가 맛을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듣던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었다. 모래를 씹는 기분이라며 그이는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복통과 설사는 조금 잦아들었다. 열은 37.5를 넘나든다.

자가격리 5일

간밤에 뽕뽕 싸매고 잔 탓인지 개운했다. 이유 없는 추위가 사라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이의 체온이 39도를 넘어섰다. 해열제가 잘 듣지 않는다.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근육통이 심하다고 호소한다. 무섭다! 코로나19는 어떻게 진행될지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 더욱 두려워진다. 둘 다 신경을 곤두세운다.

자가격리 6일

고열과 근육통으로 싸우는 그이가 너무 안쓰럽다. 해열제와 병원 처방약을 먹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너

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닐까.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머릿속이 생각의 끈으로 복잡하게 뒤엉킨다. 후회와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엄습한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자가격리 7일

다시 아침이 밝았다. 긴 밤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다행히 그이의 열이 조금 내렸다. 근육통도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며 희미하게 웃는 그이를 보니 눈앞이 뿌연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한시름 놓았다는 안도감이 내 얼굴에 묻어났는지 그이가 내 손을 힘없이 잡는다. 그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지인이 건네준 사이토 히토리 작가의 저서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일생에 거쳐 즐거운 독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메마른 나에게 ‘희망 에너지’를 불어 넣는 경건한 수행이다. 옷걸이 용으로 전략해 있던 러닝머신으로 운동도 시작했다.

자가격리 8일

이제 그이의 체온은 37도로 떨어졌다. 근육통은 어제와 같지만, 그이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힘들다. 면장갑과 고무장갑으로 가려졌던 주부습진이 잦은 일회용 장갑 사용으로 다시 나를 괴롭힌다.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잔기침 소리에 내가 화들짝 놀란다. 염려라는 말로 가장된 비난, 배려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지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싸우는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채,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이에게 쏠려있다. 당연하다. 하지만 나도 위로받고 싶다. 전염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확진자를 간호하느라 종종거리는 사람들도 확진자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가격리 11일

자가격리 11일차 그이의 증상: 미열 있음. 근육 통 조금. 기침·콧물 사라짐. 조금씩 돌아오는 미각과 후각.

며칠째 반청(半晴)하던 날씨가 더없이 맑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띄우며 날씨에 관해 문안을 묻고 싶을 정도다. 마스크를 벗고 커피잔을 들고 발코니에 섰다. 따사로운 햇살과 산들거리는 바람, 물기 머금은 진초록 나뭇잎을 매단 잡나무들, 청람색 하늘에 몽개몽개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당연히 누려오던 소소한 일상들이 눈물 나게 그리워진다. 그이의 친구가 다시 과일과 빵을 사 들고 왔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우리 집 냉장고는 지인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시장 봐주기, 음식 갖다 주기, 심지어 주전부리까지 챙겨 주는 참 좋은 사람들. 디지털 기기로 보내오는 위로와 응원도 이처럼 따뜻할 수 있다니. 누가 디지털 문명의 미래가 냉소적이라고 했던가. 사람의 손길이 덧씩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 냄새가 스며들어 우리와 함께 호흡하게 된다. 모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타국에 이런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에 거듭 감사한다. 지인들의 배려와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가격리 14일

1차 PCR검사를 받기 위해 거실로 나오는 그이의 모습이 더없이 수척하다. 체중이 5kg이나 줄었다.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니 검사비 이벤트 행사 중이라며 1.9jt만 내면 된다고 한다. 검사를 마친 뒤 서둘러 귀가했다. 저녁에 그이의 이메일로 결과지가 도착했다. Negative, 음성이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2차 검사가 남았기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이상하게 함께 검사를 받은 나의 검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마음을 줄이며 밤늦게 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메일을 받지 못했다.

자가격리 15일

오전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S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분에게 도움을 청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보았다.

- 이메일 주소가 잘못 기재 되었군요.

수정한 이메일 주소로 즉시 결과지를 받아보았다. 음성! 수많은 경우 수를 고려해 우리가 자가격리 했던 방식들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며칠만 더 힘을 내자.

자가격리 25일

드디어 길고 어두웠던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 1차 음성, 2차 양성, 3차 음성을 거쳐 오늘 4차 음성 결과를 받았다. 안방을 나서서 그이가 수줍은 웃음을 짓는다. 연애 시절, 첫 데이트에서 보았던 그 웃음이다.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선 지 오래인 인구 2억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 일일 양성 확진자 수가 일만 명대를 넘어섰고 무증상과 가벼운 증상의 환자를 감안하면 정확한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개인 위생수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인간인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제 코로나19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보낸다. 방호복을 입은 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경제

“16개 외국인기업, 팬데믹 와중에 인도네시아에 71억 달러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16개 외국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한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은 “16개 외국계 기업이 지난해 공장 건설 또는 생산을 시작했다”며 “이들 업체들이 총 미화 71억5천만 달러가량을 투자해 약 6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흐릴 청장은 이어 2018~2019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여러 외국인 업체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기업의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장에 따르면 한국 KCC글라스와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독일 파이프 제조사 바빈 등이 인도네시아 바땅 산업단지에 건축자재 공장 투자를 모색한다. 미국 헬스케어제조사 존슨앤존슨도 투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부자바주 바땅 산업단지는 4300ha(4300만 m²) 규모로 조성된다. 1단계로 450ha(450만 m²) 규모로 구축되며 올해 완공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기업에 장기 임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해외 기업들의 유치에 애쓰고 있다.

테슬라, 배터리 주원료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에 투자 제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

2월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 측이 전기차 및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투자 협상을 위해 공식적으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와 화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셉띠안 하리오 세또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업 담당 차관은 “4일 오전 테슬라로부터 (투자 협상)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는 전기차 산업 허브

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작년 가을부터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했으며 중국 CATL, 한국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등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업체의 투자 유치도 추진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기술 이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셉띠안 차관은 “리튬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테슬라와 협력하게 돼 흥분된다”며 “CATL, LG화학과 함께 테슬라로부터도 투자를 받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박서준, 전자상거래업체인 'Blibli' 국제 홍보대사 위촉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체인 블리블리(Blibli)가 배우 박서준을 브랜드 인터내셔널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현지 언론 콘탄(Kontan)을 인용, 2월 5일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이 전했다.

블리블리 브랜드 전략 담당 마를렌 디안(Marlen Deine) 부사장은 배우 박서준을 인터내셔널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블리블리 고객 대부분이 젊은 층인 만큼 배우 박서준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화합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배우 박서준은 블리블리 홍보대사 임명이 본인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기회'라며 인도네시아 밀레니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블리블리는 젊은 고객을 겨냥해 16개의 상품 카테고리 through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디지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옵션을 이용한 거래가 손쉽고, 신속·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음식배달 시장, 2020년 37억 달러... 동남아 1위

인도네시아 음식배달 시장이 총거래액(GMV) 기준으로 2020년에 동남아시아 1위 시장이 됐다고, 벤처캐피털 모멘텀 워크스(Momentum Works)가 최근 발표했다.

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인도네시아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약 37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시장 총거래액의 31%를 차지했다.

2020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음식배달 시장의 총거래액은 119억 달러로 2019년보다 183% 증가해, 2018~2019년 기간 성장률 91%를 웃돌았다.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 총거래액 순위는 그랩(Grab)이 59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총거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푸드판다(Food Panda), 고젝(Gojek), 델리뷰(Deliveroo), 라인맨 (LineMan), 나우(Now) 등 순이었다.

특히 그랩은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고젝의 음식배달 총거래액을 추월했다.

모멘텀 워크스의 요런 응은 "동남아시아 음식배달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라고 지난달 28일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걸림돌 세 가지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

경제 정책 싱크탱크 산디노믹스(Sandinomics)가 지난 2일 넥스트 폴리시(nextpolicy.org)에 게재한 칼럼에서 세 가지 걸림돌을 꼽았다.

첫째는 지리적 조건이다. 인도네시아는 군도 국가인 만큼 육상, 항공 및 해상 운송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 백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온을 유지하면서 백신을 배포해야 한다. 현재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백신은 섭씨 2~3도에서 보관해야 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둘째는 공공 의료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다. 백신 접종만이 아니라 생산에서도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무료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내 업체가 백신을 생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장비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백신 배포와 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갖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와 가짜 백신(백신 사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폴 무자니 연구소(SMRC)가 2020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2월 초에 66%에서 12월 중순이 56%로 하락했다.

국민이 백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부는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이 잘못된 국민을 호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풀뿌리 수준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면 지역사회와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어깨에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15개월 내에 전체 인구의 67%인 1억8,15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목표를 세웠지만, 인도네시아는 2월 3일까지 목표인 15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59만6천명을 접종하는데 그쳤다.

인도네시아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목표가 야심차지만 비슷한 시기에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인도와 터키에 비교하면 크게 뒤쳐진다.

인도는 1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해 1월 21일까지 104만 명을 접종했고, 7개월 내에 3억 명을 접종할 목표를 세웠다.

터키는 1월 14일 예방접종을 시작해 1주일 만에 120만 명을 접종했고, 총 6천만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인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과 보관이 쉬운 콜드체인 물류를 준비하고, 백신을 접종할 의료요원을 교육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PPE)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방산법을 이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1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호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감염병 토론회에서 센저야 세나나야케 국립 호주대(ANU)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은 세계 인구의 75%가 접종을 받는 데 1~2년이 아니라 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센저야 교수는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10명에 1명꼴로만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 음력설 전통보다 건강이 먼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올해 음력설에는 전통 의례 대신 건강을 선택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임렉(Imlek)’이라 부르는 음력설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2월 12일에 도래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예년처럼 외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통화 등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조용한 설을 보냈다.

사진작가 도니 페르난도(25세)는 자카르타로 이주한 뒤 처음으로 설을 혼자 보냈다.

그동안은 북부자카르타 순떠르지역에 사는 친척들과 소규모 가족모임을 하거나 방카 블리똥 지역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친척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설을 보냈다.

그는 13일 “이렇게 슬플지 몰랐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실제로 설은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라며 친척들과 함께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리던 때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청년협회(IPTI) 자카르타 지부장인 글렌 위자야도 올해 가족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몇몇 친척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IPTI 북부수마트라 지부장인 헨키 쫘은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교모임을 자제하고 영상통화만 했다고 말했다.

헨키는 메단에 사는 이웃들도 올해는 분주하지 않은 설을 보내고 있다며,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씁쓸이를 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020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이 2.07% 감소했다며,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 GDP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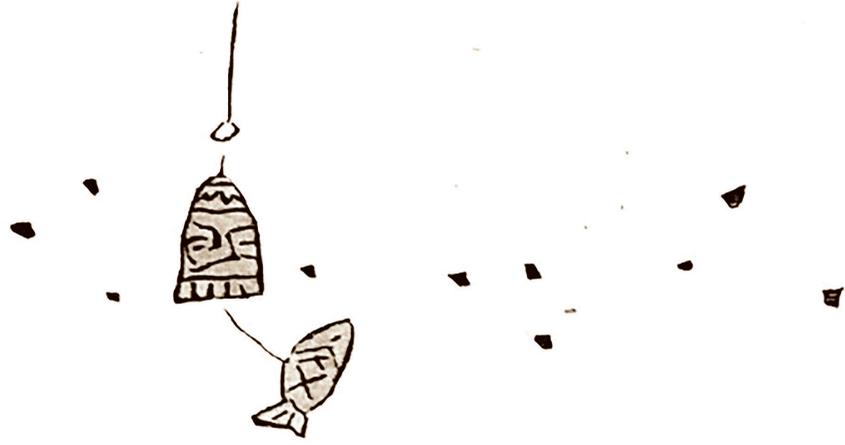
헨키는 올해는 방역을 위해 공동묘지를 방문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설 전에 ‘묘지 청소의 날’이라고 부르는 ‘쥬벵제’(Ceng Beng festival)를 위해 성묘를 한다고 설명했다.

북부수마트라 지방경찰청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모임인 IPTI와 중국계인도네시아인협회(PSMTI) 관계자를 초청해 중국계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설을 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날을 며칠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휴 기간에 확진자 증가가 우려됐다.

정부는 ‘소규모 지역단위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 Mikro)이라 명명한 방역수칙을 발효하고 레스토랑과 쇼핑몰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윈드 차임

(wind chime; genta angin, 풍경종)

(Heylen)/ HOTEL GRAN MELIA

윈드 차임은 장식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풍수(pengsui)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윈드 차임을 집에 걸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행운이 온다고 믿어요. 바람이 불면 파이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데,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 소리가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윈드 차임을 달면 좋은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요. 집안 어느 한 곳에 좋은 기운이 흐르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윈드 차임이 정적인 그 공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집 안팎을 오갈 때 윈드 차임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편한 곳에 윈드 차임을 두는 게 중요한데, 집 앞뜰이나 뒤뜰 테라스 천장 중간에 다는 것이 좋아요. 창문을 열 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집 옆에다 거는 것도 괜찮아요. 윈드 차임을 너무 낮게 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올 때 몸을 수그려야 하니까요. 풍수에서는 몸을 수그리는 것을 코우도우(kowtow)라고 하는데 어떤 공간을 오갈 때 몸을 수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거든요.

윈드 차임을 살 때는 특히 소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다 비슷한 소리 같아도 오래 잘 들어보면 조금씩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듣기 좋고 ‘짹그랑 짹그랑’ 소리가 규칙적인 걸로 고르세요. 바람이 스칠 때 소리에 규칙성이 있어야 듣기가 편하고 머리 아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파이프 라인으로 된 윈드 차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구리로 된 것도 있고 바다 동물의 걸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요, 독특한 소리를 내는 대나무 통으로 만든 윈드 차임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윈드 차임을 처음 알린 분은 피아노 조율사로 일했던 Bapak Abdul 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Bapak Abdul은 멋진 윈드 차임을 만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작품성을 인정을 받았답니다. Bapak Abdul은 ‘겐타 나다(genta nada)’ 라는(genta ‘벨’, nada ‘음, 소리, 톤(tone)’) 작품으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경제산업부문 ‘골든 어워드’ 를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전국의 수공예 작가 중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지금은 장남 (Bapak Rominaldo)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윈드 차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만 피아노처럼 소리 조율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게 뭘까’ 하는 고민에서 윈드 차임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Bapak Abdul은 처음에는 파이프 라인 같은 걸 사서 길이를 서로 다르게 잘라보고 공명을 낼 수 있는 걸 장착해서 윈드 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피아노처럼 음계를 갖춘 하모니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Bapak Abdul은 피아노 음계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바, 순다, 발리 지역의 ‘근딩(gending, 전통타악기)’ 소리를 윈드 차임에 입혔어요. 나중에는 힌두, 브타위, 플라유 전통 소리뿐만 아니라 일본음악, 중국음악, 집시, 블루스 느낌까지 낼 수 있는 윈드 차임을 만들었어요.

Bapak Abdul의 아들인 Bapak Romi 는 주로 메탈 소재로 된 파이프 라인을 낚시줄로 묶어서 만들고 있어요. 직원 십여명과 같이 작업해 한달에 20개에서 40개 정도를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요. 가격은 꽤 나가는데, 가장 싼 것이 80만 루피아 정도 하고 비싸면 1500만 루피아도 해요. 멜로디 소리만 내는 거면 더 싸게도 만들 수 있어요. 더블 베이스 소리까지 낼 수 있는 윈드 차임이라면 당연히 더 비싸겠지요? 소리를 정교하게 내게 만드는데 2-3일이 걸린다고 해요. 윈드 차임을 사 가는 10명 중 6명은 낮은 ‘근딩’ 소리를 내는 걸 산다고 하네요. 깊은 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해요. 넓은 정원이나 테라스에 둘 윈드차임으로는 순다나 발리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어울린대요.

제가 로미 아저씨께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쭙봤더니, 한국에 갈 때 선물(oleh-oleh)로 윈드 차임도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Morning Calm)니까, 한국에서 평화로운 ‘자바의 소리’ 가 나는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Genta Nada di Depok (Bapak Abdul Majid Gangga)를 검색해 보세요!

(번역: 민선희)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3월호부터는 한국음식을 인니어로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호는 김치예요.

읽기 자료로 먼저 공부해보기

Apa itu kimchi (김치란?)

①Kimchi adalah makanan Korea. ②Ini merupakan hasil fermentasi yang diberi bumbu pedas. ③Beragam sayur dapat dijadikan sebagai bahannya mulai dari sawi putih, lobak, timun, dan jenis sawi hijau lainnya. ④Sawi putih dan lobak adalah sayuran yang paling umum untuk membuat kimchi. ⑤Bumbunya dibuat dari gochutgaru (bubuk cabai merah), kecap ikan, bawang putih, jahe, udang kecil-kecil(rebon), garam, gula, dan masih banyak lagi. ⑥Bahan dasar bumbu kimchi adalah bubuk cabai merah tetapi ada juga kimchi yang tidak dibuat dengan menggunakan bubuk cabai, yaitu baekkimchi (arti harfiahnya ‘kimchi putih’). ⑦Setiap daerah memiliki bahan bumbu khas yang dicampurkan saat membuat kimchi. ⑧Sebagai contoh, penduduk daerah pinggiran pantai mencampurkan ikan yang diasinkan. ⑨Karena itu, rasa kimchi bisa saja berbeda tergantung siapa yang membuatnya dan daerah tempat kimchi itu dibuat.

①김치는 한국 음식이다. ②김치는 매운 양념을 넣어서 만든 발효음식이다. ③배추, 무, 오이, 녹색 채소류 등 다양한 채소를 김치재료로 할 수 있다. ④ 배추와 무는 김치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채소다. ⑤양념은 고춧가루, 액젓, 마늘, 생강, 새우젓, 소금, 설탕 등으로 만든다. ⑥김치 양념의 주요 재료는 빨간 고춧가루이지만,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만든 김치도 있는데, 백김치라고 한다(말그대로 하면 ‘하얀 김치’ 라는 뜻이다). ⑦지역마다 김치를 만들 때 넣는 독특한 양념 재료가 있다. ⑧예를 들면, 해안가 지역 주민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생선 젓갈)을 김치 양념에 사용한다. ⑨ 지역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므로,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김치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Jenis Kimchi (김치의 종류)

①Ada ratusan jenis kimchi. ②Kimchi yang paling terkenal dan memang paling banyak dikonsumsi adalah baechu kimchi, kimchi ‘sawi putih.’ ③Ada juga yang namanya kkakdugi atau kimchi lobak yang berbentuk dadu atau kotak-kotak. ④ Kimchi jenis



ini adalah yang paling dicari (orang Korea) saat makan sup daging seperti galbitang dan seolleongtang. ⑤Karena di Korea hasil pertanian lobak melimpah, orang Korea membuatnya menjadi kimchi agar lobak bisa bertahan lebih lama.

①김치의 종류는 수 백가지다. ②가장 유명하고 실제로 제일 많이 섭취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이다. ③깍두기라는 김치도 있는데, 깍두기는 무를 네모진(주사위 모양처럼) 모양을 하고 있다. ④깍두기는 갈비탕이나 설렁탕 같이 고기 국물요리를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김치이다. ⑤한국에서는 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무를 더 오래 먹기 위해 무를 김치로 만들어 먹는다.

Varian Masakan Kimchi (다양한 김치 요리)

구조대로 직역하면, '김치요리의 여러가지 모습'

①Kimchi ini hidangan yang paling penting bagi orang Korea. ②Kimchi selalu menemani orang Korea saat makan nasi. ③Kimchi bisa dimakan begitu saja dengan nasi, tapi juga sering digunakan untuk membuat masakan lain seperti kimchi jjigae(sup kimchi), jeon(semacam martabak), kimchi bokeumbap(nasi goreng kimchi), gimbap (nasi yang diguling dengan rumput laut kering) dan lain-lain.

①김치는 한국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hidangan : 내어놓는 음식 ②한국인들의 밥상에서 김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직역:한국사람들 곁에 늘 함께 한다) ③김치는 밥하고도 있는 그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요리를 만드는 데에도 자주 쓴다. 예를 들면 김치찌개, 전, 김치볶음밥, 김밥 등에도 김치를 넣어 먹기도 한다. *gimbab = nasi yang diguling dengan rumput laut kering (마른 김으로 싸 밥)

Manfaat Kesehatan Kimchi (김치의 건강 효능)

①Kimchi mengandung banyak nutrisi dan berserat tinggi. ②Kimchi juga rendah kalori karena bahan utamanya sayur. ③Makanan fermentasi ini kaya akan bakteri sehat lactobacillus. ④Tidak hanya vitamin, tapi kimchi juga kaya akan asam amino dan mineral seperti zat besi dan kalsium. ⑤Kimchi juga bisa dikatakan sebagai makanan anti penuaan karena kimchi banyak mengandung vitamin dan antioksidan. ⑥Cincangan bawang putih di dalam bumbu kimchi itu membantu menurunkan kadar kolesterol. (Sumber : abuelas kitchen / kimchi makanan tradisional dari korea yang populer di Indonesia)
이 글을 조금 바꾸어서 풀이하였음.

*kaya akan ~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가 많은 풍부한
Indonesia kaya akan sumber daya alam. 인도네시아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①김치는 영양가가 많고 섬유소도 많다. ②김치의 주재료가 채소이다 보니 칼로리도 낮다. ③발효음식인 김치는 ‘락토바실러스’ 라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④김치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아미노산(asam amino)과 철분(zat besi), 칼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⑤김치는 비타민과 항산화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anti penuaan)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⑥ 김치 양념안에 있는 빵은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Kimjang, Tradisi Membuat Kimchi Ramai-Ramai (김장, 오손도손 모여 김치를 만드는 전통)

①Kalau musim dingin kan jenis sayuran yang bisa tumbuh itu terbatas, jadi orang mulai mengawetkan makanan dengan garam dan memakai cabai merah. ②Di hari kimjang itu biasanya seluruh anggota keluarga berkumpul atau paling tidak harus ada 1-2 anak yang membantu ibu, karena kimchi yang dibuat banyak untuk persediaan sepanjang musim dingin. ③Zaman dulu, tetangga berkumpul dan bergotong royong membuat kimchi. ④Di hari kimjang, biasanya keluarga juga menyiapkan daging babi untuk direbus, dan nantinya dimakan dengan kimchi yang baru dibuat. ⑤ Begitu enakya, bahkan ada ungkapan “rasanya enak banget, sampai enggak sadar kalau ada salah satu kita yang meninggal.” ⑥ Memang, orang Korea tidak bisa hidup tanpa kimchi.

① 겨울에는 자라날 수 있는 채소 종류가 제한적이니, 사람들이 소금으로 음식을 절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서 고춧가루도 쓰게 됐어. ②김장하는 날에는 보통 온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적어 자식들 중 한 둘은 엄마를 도와서 김장을 하는데, 겨울내내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거야. ③ 옛날에는 이웃들이랑 같이 서로 도우면서 만들었었어. ④김장하는 날에는 돼지고기도 준비해서 삶는데 금방 만든 김치랑 같이 먹는 거야. ⑤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야. ⑥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정말 못살아.

⑤번에 나온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 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어머니가 지나가도 모르는 맛’ 이라고 표현해요. Mertua lewat juga enggak sadar.

실력을 쑥쑥 키우는 질문은 요기로 nusantara817@daum.net



대화를 보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표현 골라보기

Nikmatnya kimchi ketika dimakan dengan ubi (고구마랑 먹으면 꿀맛인 김치)

Dewi San, kemarin kakakku bikin kimchi.

Wow, hebat. Aku aja belum pernah bikin seumur hidup. Sukses enggak?

Sani

Dewi Lumayan. Kemarin makan indomie pakai kimchi.

Enak enggak? Indomie pakai kimchi hahaha.

Sani

Dewi Ya... enak dong....Mertua lewat juga enggak sadar. Aku kan memang penggemar kimchi San.

Aku kadang makan mi pakai phagimchi(kimchi daun bawang). Nikmat banget. Coba Dewi makan ubi cilembu pakai kimchi. Orang Korea kan kalau musim dingin, suka makan ubi pakai kimchi. Perpaduan yang sempurna, dari segi rasa dan gizi.

Sani

Kulkas Khusus Kimchi? (김치전용 냉장고?)

Winda San, kemarin aku lihat drakor, ada nenek yang minum kuah kimchi putih itu...

Iya.. dongchimi bukan?

Sani

Winda Iya sepertinya itu dongchimi.... itu rasanya enggak asam? Dia habisin sekali teguk gitu.

Haha asamnya enggak kayak jeruk nipis tapi lebih ke manis... ada asamnya dikit.... Kalau nenek-nenek dan ibu-ibu suka sih minum kayak gitu. Katanya bagus untuk pencernaan.

Sani

Winda O... gitu..... Terus, aku dengar kimchi bisa meningkatkan imun tubuh, ya? Kemarin aku baca berita ada selebriti Amerika pernah kena covid, terus makan kimchi dan sembuh.

Iya kimchi itu memang makanan yang menyehatkan banget.

Sani

Winda Terus, mau nanya lagi San. Kalau nonton drakor itu, orang Korea rata-rata punya 2 kulkas di rumah. Kulkas yang satu bentuknya agak lucu kayak kulkas es krim.

O... itu kulkas khusus kimchi.

Sani

Winda O ya? Saking banyaknya kimchi harus ada kulkas sendiri?

Karena untuk makan kimchi yang enak... harus jaga suhu yang pas, dan kimchinya banyak, jadi disimpan di kulkas khusus kimchi. Orang Korea ada-ada saja, ya? Bisa bikin kulkas spesial untuk kimchi, hahaha. Kalau zaman dulu kan kimchi disimpan di bawah tanah agar suhunya bisa terjaga. Zaman sekarang, itu diganti dengan kulkas modern khusus kimchi.

Sani

자주 묻는 민원 Q&A

해외에 살면서 잘 모르는 한국 법률을 정부부처로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사례들을 통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Q

해외 체류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를 드립니다.

A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발급에 관하여 신청하신 질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복무 중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 받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할 수가 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갱신 발급연기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도로교통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와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와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2항)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55조제3항)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경찰청

작성자: 코리아넷관리자 2021.01.15

Q

출국 후 약 일년 반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예정인데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지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 등록 기준과 한국 내에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국민등록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90일 이상 체류국민에 한해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첫번째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현지국가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상 신속한 연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거나 은행 통장 개설을 하거나 차량을 구매할 시에 거주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거주확인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한 후에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외국민등록을 한다고 해서 한국 내에서의 정보 변동은 없습니다.

-외교부

작성자: 코리아넷관리자 2020.12.18

▶Q

1.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해외로 중도전학하여, 현지에서 6학년을 다시 다녔습니다. 올해 6~7월에 현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려 합니다. 입국 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고2 1학기 누락) 학기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2. 위와 같은 경우 전학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3. 모든 서류에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또 전학에 필요한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4. 재외국민 대입 특례 수시가 고3 7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게 되면 졸업 전에 수시를 보는 것인데, 가능한가요? 5. 대학교 수시전형에 내야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귀하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없이 2학년 2학기로 편입 희망하시는 경우, 학기 부족으로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대학마다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 혹은 대입상담센터 (02-1600-1615)로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국자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전편입학 안내 → 귀국자편입학 안내에 「201X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인정유학의 경우에는,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부, 모, 학생)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 발행), (부, 모, 학생)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기본으로 하며, 제3국 수학 인정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예방접종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구비합니다. 아울러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학력인정학교(교육부 → 정책 → 초중고교육 →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라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가능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귀하께서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서류 검토에 지장이 없도록 편입학 직전 발급된 서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2021.01.08

Q

해외 거주 시 아파트 청약 자격제한 관련 질의사항

A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해외 근무 후 국내 복귀 후 청약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장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해외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계속 근무하고 국내에 귀국하셨다면, 투기과열지구 지구의 경우에는 1년 후 /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장이 설정한 기간 이후에 우선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044-201-3343)에게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2020.03.13

출처: <http://www.korean.net/portal/minwon>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2020 최우수협의회 선정 대통령 표창

2월 4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대사 박태성)에서 대통령 표창장 전수식이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송광중)는 2020 최우수 협의회로 선정되어 표창장이 수여됐고 또한 이주한 부회장. 우용택 간사. 정근영 자문위원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송광중회장은 “2021년 3월 1일, 한인문화회관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동포사회 및 인도네시아와의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제 목 :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P.A.K. Law Firm (김민수 변호사)
-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hsyun14@mofa.go.kr /끝/



Orasa's (SCBD)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요새 주룩주룩 매일 쏟아지는 비로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곧 한국은 봄이 올텐데 인도네시아도 빨리 건기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요즘입니다~
 이번 호에서 드디어 태국식당을 처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카르타에 태국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과 넉넉한 양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 없었는데요. 이번
 에 드디어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태국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바로바로 SCBD에 새로 생긴 쇼펍몰
 <Ashta 8>에 입점한 태국 식당 <Orasa's>입니다. 기존에 Senayan City, Grand Indonesia,
 Pondok Indah 등 쇼펍몰에서 태국 식당 <Jiltada>를 운영하고 있는 Jiltada Group이 새롭게 런
 칭한 식당인데요. 식당 입구에서 내부 인테리어 및 분위기만 봤을 때는 다소 가격이 있는 식당처
 럼 보이지만 막상 메뉴판을 보시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행복한 가격의 식당입니다.
 참고로 기존 식당 Jiltada보다 맛, 양, 가격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이제 몇 가지 메뉴를 추천 드릴게요~
 Papaya Salad (60,000루피아++)는 현지에서 ‘솜탐(Somtam)’ 이라 불리는 그린파파야로 만
 든 태국식 샐러드입니다. 매콤, 새콤, 짭짤, 달콤한 맛을 한번에 느낄 수 있어 입맛을 매우 북돋아
 주는데요. 입맛 없을 때, 고슬고슬 밥 한 숟갈에 젓갈 한 점 올려 먹으면 입맛이 바로 돌아오는 것
 처럼, 솜탐 한 입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젓갈이 한국인의 밥도둑이라면, 솜탐은
 태국인의 밥도둑인 셈이죠☺ 특히 이 곳의 솜탐은 양념이 매우 강해 샐러드의 느낌보다는 반찬
 에 가깝습니다. 볶음밥 또는 볶음면과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Phad Thai with Prawn(85,000루피아++)는 태국의 대표 음식이죠! 팟타이는 태국식 볶음 쌀국수로, ‘볶음’의 뜻을 가진 팟(Phad)과 태국의 타이(Thai)가 합쳐진 말입니다. 피시소스의 짠맛, 타마린드 즙의 신맛, 종려당 단맛이 꼬들꼬들한 쌀국수와 아삭아삭한 숙주나물과 어우러져 싱그러운 맛을 풍기는데요. 팟타이 한 젓가락을 먹을 때마다 마치 방콕의 카오산 로드 중심지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흠 언제쯤 다시 방콕 카오산 로드의 맛있는 길거리 간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Tom Yam Goong(95,000루피아++) 역시 태국의 대표 음식이죠~ 세계 3대 스프(뽕얌꿍, 부야베스, 삭스핀)에 손꼽히는 뽕얌꿍은 새우에 향신료와 소스를 넣고 끓인 음식입니다. 특히 이 식당의 뽕얌꿍은 음식가격대비 큼지막한 새우 한 마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큼한 맛 때문에 뽕얌꿍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맛입니다. 저도 뽕얌꿍을 처음 먹었을 때, ‘도대체 왜 국물에 식초를 넣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큼한 맛이 매우 강렬하게 다가와있는데요. 차츰 먹다보니 그 맛에 끌리게 되더라고요. 또한 각 식당마다 그 시큼한 맛의 정도가 다르니 다양한 식당에서 뽕얌꿍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Moo Ping(75,000루피아++)은 태국식 돼지고기 꼬치입니다~ 다른 태국식당에서는 돼지고기 요리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이 곳에서는 Grilled Pork, Green Curry Pork, Red Curry Pork, Phad Graprao 등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를 팔더라고요~ 이 곳의 무뎡은 두툽한 돼지고기 꼬치 4개와 달짝 짭조름한 소스가 함께 나옵니다.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은 당연히 맛있고요~강한 양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꼬치만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맥주 안주로 딱입니다~ 강추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PSBB(대규모사회적제약조치)에 이어 지속되는 PPKM(사회활동제한조치)으로 인해 예전처럼 맘 편히 외부에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끔 기분전환이 필요하실 때,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을 때, <Orasa's>에서 태국 음식 어떠세요?

참고로 GoJek/Grab으로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Orasa's>

음식 종류 : 태국 음식
 가격대 : Rp 35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 11:00~21:00
 주소 : Ashta Distric 8 GF, SCBD Lot 28
 Jl. Jend.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 Google 참고

자극자극 쌓이는 부모지식



하늬들 맞춰가는 아이와나

아동심리치료사의 세계

『International Wellbeing Center』 장세라 상담사

(인터뷰 진행:이영미편집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걱정이다. 마음의 결핍을 채워 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때, 자카르타에서 『International Wellbeing Center (IWC, 이하 웰빙센터)』와 유튜브 마음씨앗[MINDseed] 부모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장세라 아동심리치료사를 만났다. (지난호에 이어)

Q.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첫째가 3일간 열린 Harvard Innovation Challenge Programme의 토론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정규 수업 후, 주말 동안 참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일요일 저녁 늦게 방에서 나오며 대회 결과를 말하는 열띤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5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듯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인 칠정(七情)을 골고루 느끼며 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궁금해합니다. 성내거나 두려운 감정, 욕심도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사실 우리는 7가지보다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감정을 체험해 본 아이들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느껴보아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다루어야 탈이 없는지를 점차 학습하게 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열등감은 잘 활용하면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화’라는 감정은 늘 표현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밖으로 빼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호 ‘전문가의 세계’에 선생님을 모시게 된다고 귀땀했더니 가까운 지인이 질문 두 개를 보내왔습니다.

- 첫째, 아동 치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힘든 부분은 ‘끝없는 수련’ 인 것 같습니다(비용도 많이 듭니다 ㅎㅎ).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학회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정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새로 나오게 되는 검사도구나 치료기술, 경험 등을 늘 배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Lifelong learner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아마 평생에 걸쳐 경험을 쌓고 새로운 기술과 이론들을 배워야 하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분야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 둘째,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웰빙센터를 운영하며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의료 또는 심리상담 분야 업종을 직접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문제에 온 에너지를 빼앗길 것 같아 운영은 회사에 맡기고 저는 상담에 전념하는 중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옆에서 보면 돌발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라인만큼 운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셋째, 타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제 기능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물 ‘정서능력’ 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차별성을 부여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생활은 한국에 비해 아이들에게 무료하고 체험할 것도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으나, 이 곳에서 남겨야 할 것은 바로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지기 힘든 ‘정서발달’ 입니다.

정서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더 잘 발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생활은 한국에 비해 아이들이 정서발달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할 것이 많은 한국에서는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느릿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심심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만의 흥미를 찾아가거나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여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늘 주어진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던 아이들은 스스로 재미를 찾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주어진 활동 말고, 스스로

어떻게 시간을 채울지 고민을 해야 하는 이 곳에서의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더 이해할 기회가 많으며, 경쟁적으로 주입되는 학습을 받지 않아도 되어 정서적으로 여유롭게 발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서발달은 자연스럽게 창의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심심해하며 굴러다니더라도 무언가 할 일을 대신 찾아 주시거나 활동을 찾아 주시려 하시지 말고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게임이나 미디어노출로 항상 이어지는 상황은 제한해야겠지만요.

Q. 아동심리치료사로서 힘들었던 부분만 여쭙본 것 같습니다. (웃음) 일하시며 뿌듯했던 경험도 들려주세요.
생각보다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인기피, 공황장애, 게임중독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포기한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켜 방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점점 치유가 되어 학교라는 공간으로 돌아가 원만한 생활을 하고 대학진학까지 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 했다’ 생각을 문득 하곤 합니다. 대학이 인생에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교육을 ‘포기’ 했을 때 아이들의 미래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지요. 아이들이 내적인 힘을 키워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Q.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대가 가해졌는지 기사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문제행동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아동의 약 70%는 학대 경험 등으로 트라우마, 폭력·자해, 우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고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기의 학대 트라우마는 치료를 하더라도 평생 그 기억이 따라다니며 힘들게 하고, 성격형성에, 대인관계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까지 그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정인이 사건 외에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기사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에서 간단하게 태교방법이나 임신부 운동 등 교육을 시켜주듯이 나라에서 짧은 일정일지라도 예비 부모들이나 입양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을 의무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상당히 깨어 있으신 분들인거죠. 아동학대를 행동에까지 옮기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상담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을 제공해주어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어떤 선까지 체벌이고 학대인지를 짚어주며, 학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도움 받을 곳이나 핫라인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산후 우울증으로 아기들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을 방지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충동을 예방 및 조절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하고, 미국 처럼 학대로 인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켰을 때 아동을 나라에서 어떻게 케어 해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사회가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Q 장세라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상담을 계속 하면서, 한동안 아이들과 집에 붙어 계셔야 할 부모님들이 직접 전문가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유튜브 부모교육 채널을 1년동안 끊임없이 잘 운영하고 싶고요, 현재 Daum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책 집필을 잘 준비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뤄줄 책 한 권과 양육기술tip 서적 한 권을 올 해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Q 아동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지지해줄 단 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는 일입니다. 사람과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꾸준한 배움에도 지치지 않을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Q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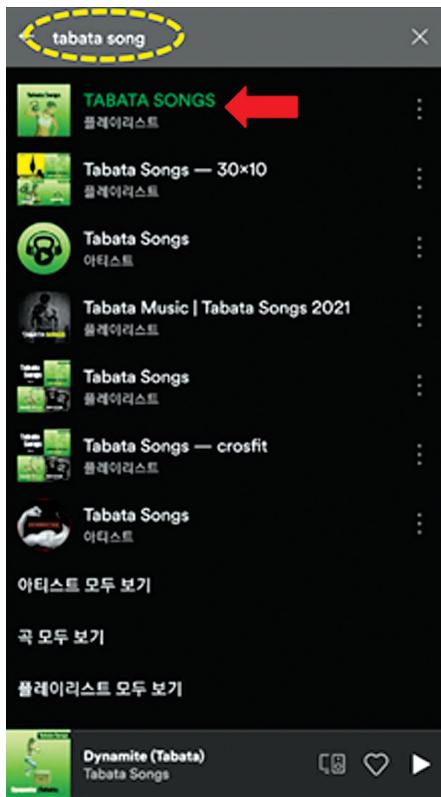
코로나로 온 가족이 집에 붙어 있는 지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특히 이곳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상황이 더 열악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집에 묶여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붙어 있어야 하는 이 시간을 ‘힘든 시간’ 이 아닌 ‘우리 가족만의 시간’ 으로 만들어 가시길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생각의 전환! 모두 이 시간 잘 이겨 내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코로나로 인해 Gym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홈트레이닝을 연속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호에서는 EMOM(Every Minute On the Minute)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드렸는데 이번호에는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타바타(Tabata)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바타 운동은 20초 운동/ 10초 휴식하는 방식으로 8라운드 총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초 동안 주어진 운동을 열심히 수행하시고 10초간 쉬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합니다.



타바타 운동은 운동생리학자인 이즈미 타바타 박사가 1996년에 개발한 운동법입니다. 운동선수의 실력 및 체력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운동법이에요. 타바타 운동법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4분 동안 하는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기적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1. 무산소 능력, 심폐지구력 등이 향상됩니다.
2. 짧은 시간 대비 최대의 운동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음악 App에서 Tabata Song 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많은 플레이리스트가 검색이 되며 하나하나 클릭하여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플레이 하면서 운동 준비를 하고 음악 시작하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3, 2, 1 자, 이제부터 같이 운동 합시다~! 이번 달 모든 운동은 1.5L 물통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몸보다는 조금의 무게를 더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이 시작되면 20초 동안 아래의 운동 하나 하나를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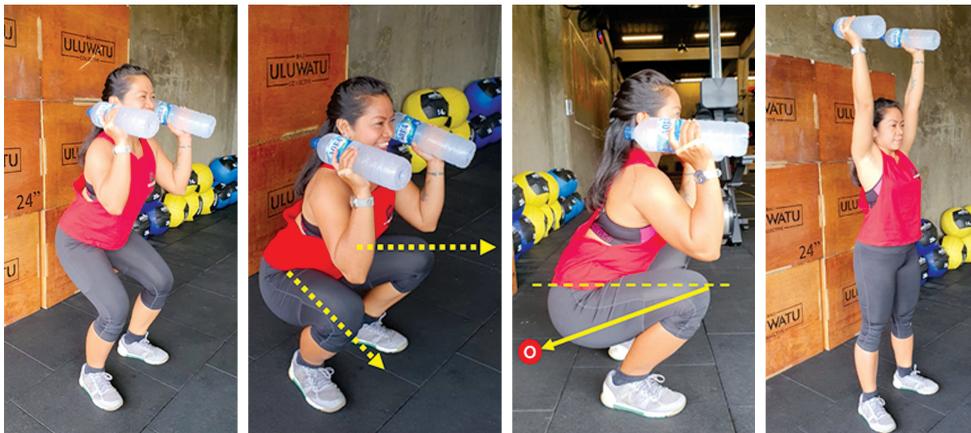
1. Shoulder Press

-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스탠드 한 상태에서 2개의 1.5L 물병을 들고 운동을 시작한다.
- 2) 이때 2개의 물병은 어깨 위에서 약간 띄운 상태이어야 하며 몸통 가운데 Core에 힘을 준다.
- 3) 이 상태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깨와 팔의 힘만 이용하여 두 물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
- 4) 이때 양손은 몸통과 직선이 되도록 올린다. 팔이 앞쪽으로 뻗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이후 다시 첫번째 동작과 같이 물통을 어깨 위로 내린 후 다시 위로 올리는 운동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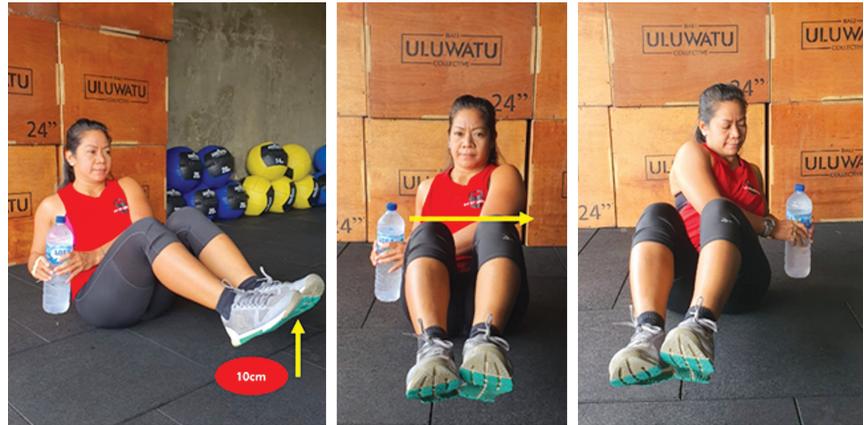
이렇게 20초 동안 운동 수행 후 10초간 휴식하며 다음 동작을 준비한다.

2. Thruster



- 1) 1번 동작과 같이 양발을 어깨너비로 스탠드 한 후 양손에 물통을 들고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가 준비 자세이다.
- 2) 이후 운동이 시작되면 물통을 어깨 위로 올리면서 양 다리는 스쿼트 자세로 내려간다.
- 3) 스쿼트 수행 시 양 무릎은 정방향인 아닌 약간 바깥쪽으로 펼치면서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몸의 무게가 발 뒷꿈치로 이동하는 것이 느껴진다.
- 4) 스쿼트 시 사진과 같이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 5) 스쿼트 이후 다리를 일으키며 동시에 들고 있던 물통과 함께 머리 위로 올린다.
- 6) 본 동작을 연속하여 20초 동안 수행

3. Russian Twister



- 1) 물통 1개를 몸통 오른쪽으로 들고 양다리는 지면에서 10Cm가량 든 상태가 준비 단계이다.
- 2) 운동이 시작되면 오른쪽으로 들고 있던 물통을 왼쪽으로 옮긴다.
- 3) 이후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 4) 본 동작을 수행하면서 Core(아랫배)에 힘을 주고 가능하면 양발은 지면에서 10Cm가량 들어올리는 것을 지속한다.

4. Bottle Push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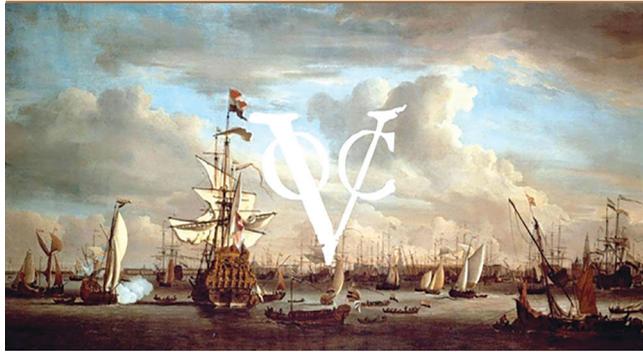


- 1) 일반적인 Push Up 자세를 취하고 오른손 옆에 물통을 위치한다.
- 2) Push Up 후 오른쪽에 있던 물통을 오른손을 이용해 왼쪽으로 옮긴다.
- 3) 이후 다시 Push Up 후 왼쪽에 있던 물통을 왼손을 이용해 오른쪽으로 옮긴다.
- 4) 이 운동을 반복하여 20초를 수행한다.

타바타 운동은 20초 운동, 10초 휴식을 8번 수행하는 4분 운동입니다. 위의 4가지 운동을 1-2-3-4 번/1-2-3-4번 총 2라운드 수행하여 마무리합니다. 필자의 경우 이 타바타 운동을 오전에 1회 저녁에 1회 수행하면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우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모두들 소파에서 일어나 같이 운동합시다~!



VOC 조선소와 주변 건물들

한인문화연구원 부원장 정윤희

[그림 출처-Youtube.com/Dutch Docu Channel]

VOC(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순다글라빠 조선소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는 배들의 운항조절과 항구수리 및 정비를 위한 조선소를 순다글라빠 쥘리웅강(Ciliwung) 입구에 세웠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였던 순다글라빠 항구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는 배들로 매우 붐볐다. 1725년 한해 동안 네덜란드와 바타비아의 순다글라빠 항구 사이를 정기적 오간 배들은 161척으로 기록되었고 그 중 52척이 아시아 국가들의 항구를 오갔다. 조선소의 정비기술은 우수했다. 1602년과 1795년 사이에 동인도회사(VOC)에서 정비를 받은 1700척의 선박 중 오직 246척의 선박만이 재난이나 전쟁으로 손실되었다는 것으로 VOC가 얼마나 배들의 상태를 잘 유지했는지 알 수 있다.

바타비아 순다글라빠 항구에서는 정향, 육두구, 육두구화, 계피와 같은 고급 향신료들이 주로 선적되었고 후추와 설탕도 선적되었다. 자바커피 수출 또한 네덜란드의 독점무역에 포함되었다. 남아시아 동북부 지방의 벵갈(Bengal) 지역의 초석과 아편, 중국의 켄톤(Canton) 지역의 차, 일본산 구리와 특히 동인도회사 소유의 인도산 섬유들이 이곳에서 집산되었다. 17세기 당시 아시아 국가 간 무역은 유럽무역보다 네 배의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들어와 유럽 무역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1699년 살락(salak) 화산이 폭발한 후에 깔리 버사르(Kali Besar) 지역의 수심이 더욱 깊어져 순다글라빠 조선소는 작은 배들의 수리를 위해 쓰였고 더 큰 선박들은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큰 파도가 없는 만이 있는 뿔라우 까빨(Pulau Kapal) 또는 온러스트(Onrust)에서 점검받았다.

VOC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였으니 무역을 위한 커다란 창고들이 많았다. 아래 그림의 깃대 우측 창고에는 밧줄과 피치, 타르를 보관하던 창고들이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1980-1981년에 깔리빠킨(Kali Pakin) 도로를 만들때 파손되었다.

VOC 조선소는 두 개의 부두로 구성되어 있었다. VOC 조선소의 북부는 티머워프(Timmerwerf) 또는 조선업자 부두 (Shipbuilders Wharf)라고 불리며 작은 배와 보트를 수리하는 데만 사용되었다. 남쪽 부분은 안케티머워프(Ankertimmerwerf) 또는 닻 조선소 부두 (Anchor Shipbuilders Wharf)로 알려지며 닻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후에 중국 고물과 대장장이들의 집결 장소가 되었다.



[17세기 VOC 조선소 - 18세기의 여러 개의 그림들을 붙인 것 / 그림 출처-researchgate] 그림 중앙부분을(깃대의 왼쪽) 복원하여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벽면에 VOC로고가 새겨진 옛 VOC 조선소]
[사진출처-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사진출처-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VOC 조선소는 훌륭한 선박관리 기술과 많은 해양 무역선들이 드나들던 최고의 항구였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많은 수의 숙련된 목수와 비고용 노동자 그리고 수 백 명의 노예들은 형편없는 위생상태와 말라리아로 인해 1730년대부터 빠르게 죽어나갔다. 정부가 조선소를 폐쇄하고 중국인 목수에게 임대 해 주었을 때인 1809년까지 사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VOC조선소가 창고로 팔리기를 반복하던 중 역사적 가치를 알아본 한 여성이 마침내 창고를 구매했고 이 낡은 건물은 복원되어 레스토랑과 갤러리로 사용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행정 및 기술 사무소들의 집결지

VOC 조선소의 건물들에는 당시 동인도회사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 및 기술사무소들이 집결해 있었다. 1746년 순다플라빠 항구 조선소에 자카르타 최초 우체국이 개관하였고 해양 지도제작자, 조선공, 밧줄 제작자, 금속세공사(대장장이)와 다른 기술자들의 작업장이 만들어졌다. 이 전문가들이 배의 품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동인도회사에(VOC)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지도 제작 역시 동인도회사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 조선소는 지도제작 활동의 중심지였다. 지도 제작 수장의 감독 하에 제작자들은 새롭게 발견된 곳을 아시아 국가용과, 네덜란드 본 사용으로 나누어 추가하며 만들었다. 이런 지도들은 사업기밀로 취급되었다.

‘아주 오래된 카페’ Very Old Cafe (VOC)

VOC 조선소가 있었던 일부 건물은 19세기 초 여러 개의 레스토랑과 갤러리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 기름과 화학물질 비품창고로 쓰이던 창고건물은 새로운 주인이 개조하여 1999년부터 독특한 분위기를 주는 ‘아주 오래된 카페’ -Very Old Cafe(VOC)로 사용하였다. 목재 기틀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은 유럽스타일의 건축물에서는 보기 힘든 것인데, 이 건물의 초기 운영자가 유럽과 중국의 문화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바타비아에 거주했던 후손, 브따위(Betawi)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유럽, 중국, 브따위의 다양한 음식이 유명했다. 특히 세가지 맛의 구운오리요리, 오리껍질빵, 소꼬리요리, 사바나치킨(Ayam Sabana), 우중쿨롱(Ujung Kulon) 지



조선소 건물 중 일부가 현재에도 수십 년 방치된 채로 있거나 일부는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다.
[사진출처-한.인니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사진출처-한인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역의 음식 등 독특한 이름의 요리가 알려져 있다. 한때 유명세를 탔던 VOC 레스토랑은 2020년 3월 한인문화연구원 자카르타 역사 연구팀 방문 시 이미 문을 닫았었고 레스토랑 옆은 화교 음악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길게 이어진 건물 한편의 라자(Raja) 레스토랑은 여전히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지 결혼식 단체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다.

반뚜라(Pantura) 기념비

옛 조선소 뒤편에 위치한 운하자리에 1996년 반뚜라(Pantura) 기념비가 세워졌다. ‘반뚜라’는 반따이(Pantai: 바다), 우따라(Utara: 북쪽)를 뜻하며 이 기념비는 간척사업과 북부 해안 재건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이 야심찬 사업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안케워프(Ankerwerf) 닻 제작소

VOC조선소의 닻 제작소 안케워프 건물은 현재 자카르타에서 가장 오래된 VOC의 창고 중 하나이지만 정부와 소유권자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었다. 그 결과 2018년 6월 1일, 17세기에 지어진 역사적 건물이 고작 5분만에 무너졌다고 건설현장 노동자인 크리스와(Kris) 나따가(Nata) 목격담을 진술했다. 1834년 선박 수리 장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안케워프는 1920년 부두 깔리 버사르(Kali Besar) 찰리웅(Ciliwung) 강이 폐쇄되며 그루트 붐(Groote Boom) 수출입항 세관본청 장소 및 금속세공, 중국폐품, 화학 물질 보관소의 창고로 다양하게 쓰였다. 1990년대에 안케워프는

현재 소유주인 PT Karya Teknik Utama에 의해 부분적으로 복원되었으나 역사적인 차원의 보존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VOC창고 건물이 부분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수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루트 붐(Groote Boom) 수출입항 세관본청

1834년 бата비아 순다글라빠 항구 입구 옆에 ‘그루트 붐’ (Groote Boom)’ 이라고 불리는 수출입항 세관본청 사무실이 지어졌고 1877년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새로운 항구로 옮기기 전까지 항구 총관리 소장 사무실이 그루트 붐 건물 내부에 있었다. 1900년대 우편엽서에 등장 하기도한 그루트 붐 수출입항 세관본청은 1996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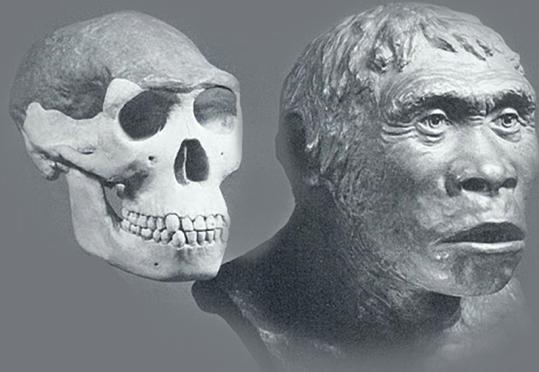
VOC조선소의 행정 및 기술 사무소들의 집결지인 인도네시아의 17세기 유산 건물 보존은 실망스러운 역사가 될 것이고 상업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복원은 앞으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보살핌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수:최수진
*참고문헌 및 번역
- 『Historical Sites of Jakarta』
by Adolf Heuken SJ/2007년
- observerid.com



[그루트 붐’ (Groote Boom) 수출입항 세관본청은-자료출처 picryl.com]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고인류 - 호모 에렉투스



유은규 (JIKS 교사)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을 다녀온 한국인이라면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큼 공간이 여유롭지도 않고, 전시하고 있는 유물이나 예술품의 종류도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기억에 남을 만한 감명 깊은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 그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1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고인류의 유골이다.

자와(Jawa) 원인(猿人)이라고도 알려진 이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은 한때는 다윈의 진화론의 주장처럼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missing link)로 알려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던 유명한 유골이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호모 에렉투스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고인류인 하이델베르크인, 자바인, 베이징인에 대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퍼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운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고인류이다. 그 이전의 고인류에 해당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류는 모두 아프리카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1891년 네덜란드의 고고학자이면서 군의관이었던 뒤부아(E. Dubois)가 솔로 강변의 트리닐(Trinil)에서 눈썹 윗부분의 머리뼈와 넓적다리뼈, 그리고 치아 한 개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머리뼈의 이마 부분은 현생 인류의 이마와는 다르게 낮고 급하게 뒤로 경사가 져 있으며, 현생 인류에게는 없는 안와상용기(눈썹과 이마 사이에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 부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러면서도 넓적다리뼈는 침팬지나 원숭이와는 달리 똑바로 서서 걷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뼈들이 원숭이와 인간을 이어주는 잃어버린 연결 고리(missing link)라고 생각하고 그 유골에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pithecanthropus erectus)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피테칸트로푸스는 인간 같은 원숭이라는 뜻이고, 에렉투스는 똑바로 서 있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세 점의 고인류의 유골이 한 지점에서 한꺼번에 발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머리뼈와 넓적다리뼈는 1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굴되었고, 치아가 발굴된 것과 넓적다리뼈가 발굴된 것은 거의 1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세 점이 정말 한 개체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한다.

트리닐에서 발견된 이 피데칸트로푸스 에렉투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들어봤겠지만, 트리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이란(Sangiran) 유적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트리닐이나 상이란이나 모두 솔로강변에 있는 고인류 유적지로, 1936년 독일의 고인류학자 괴니히스발트(Gustav Heinrich Ralph von Koenigswald)가 이곳에서 발굴을 시작한 이후 약 50여 개체의 고인류의 유적이 발굴되었다고 하고, 이 양은 전 세계에 알려진 고인류 유골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곳에서 발굴된 호모 에렉투스를 솔로인이라고 부른다. 이 솔로인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최근 논문에 의해 10만 8천년~11만 7천년 사이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 연대 측정에 따르면 솔로인은 호모 에렉투스의 마지막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고인류학 연구의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연대 측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상이란 유적의 연대 측정의 경우에도 1930년대에 발굴된 그 유골의 정확한 발굴 장소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솔로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층의 순서가 바뀐 곳이 많기 때문에, 발굴 위치가 달라지면 연대 측정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고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연대 측정 방법이 비전문가인 우리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이상희 교수가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고인류학의 연대 측정 결과가 20만년전 ± 20만년전 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고 한다. 40만년 전의 유골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의 유골일 수도 있다. 이 말은 고인류학의 연대 측정이라는 것이 오차 범위가 매우 넓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고인류학자들은 한 두 개의 유골의 파편을 들고 몇십 만년이라는 긴 시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그들만의 외로운 리그다.

이 상이란의 초기 인류 유적지는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솔로의 상이란에 고인류에 대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솔로에는 2~3차례 갔다왔지만 솔로 인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인류 박물관에 가 보지는 못했다. 다음 번에는 꼭 들러봐야 되겠다.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야 될 텐데.

<http://blog.naver.com/unesco114/220239179527>
 솔로인의 연대 측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상희 교수의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였음.
https://www.youtube.com/watch?v=qhm_QOMK1CA



01.



02.

형태냐 기능이냐 리얼리즘으로서의 전통

최근 다양한 예술가들이 전통과 현대를 잇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한다. 특히 단순히 외형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맥락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눈에 띈다.

01. '8' 시리즈 김홍식, 스테인리스 철판 위에 나전과 옷칠 2017 © 최범

02. '골드 카모' 시리즈 김홍식, 나무 위에 금박과 옷칠 2017 © 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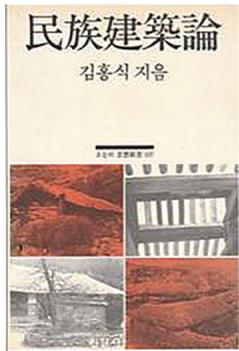
전통 계승의 방법

“예컨대 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 옛날의 학교가 지닌 기능, 그 배치 및 형태 등과 그 이후의 변화를 이해하고서, 현재의 학교가 그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전통이 계승된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새로운 기능의 건물이 근대에 와서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원시적인 상태로서의 모양이 전시대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이 분화하면서 확대된 것이 바로 근대화의 방향이다.” *

한국 건축 연구자 김홍식 교수는 전통의 계승을 형태가 아니라 기능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형태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동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형태만을 계승하는 것은 정작 그러한 형태를 산출한 구조와 배경을 무시하고 피상적인 모방과 답습에 빠지게 만든다.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에서 어떤 형태의 원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역시 그 형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전통을 계승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태와 기능도 마찬가지로이다. 전통을 형태로 이해하는 것과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물론 둘 다 가능한 방법

*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363쪽



03.



04.

- 03. <민족건축론> 김홍식, 한길사, 1987
- 04. 아비뇰의 아가씨들(Les Femmes d'Avignon), 파블로 피카소, 1907

이지만, 그동안의 지나친 형태적 접근이 전통에 대한 피상적 인식을 초래했다면, 이제는 그와 다른 관점의 기능적 접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홍식 교수의 지적처럼, 기능적 접근은 형태적 접근과 달리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의 비교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종교배와 전통

별거벗은 다섯 명의 여자가 도발적인 자세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그중에서 두 여자의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을 닮았다.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들]은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20세기 초 유럽의 미술가들은 가면과 조각 같은 아프리카 미술에서 새로운 감각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유럽 미술에서 볼 수 없는 원시적 생명력이 살아 있었다. 따라서 당시 유럽 미술가들은 ‘늙은’ 유럽 문화와 미술을 회춘(?)시켜줄 정력제를 아프리카 미술에서 찾았던 것이다.

‘늙은 유럽’과 ‘젊은 아프리카’라는 대비 속에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의 전유(專有)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도를 통해서 문화의 기능전환(Umfunktionierung)을 꾀한 것이기도 했다. 피카소의 작품은 아프리카 미술의 원시적 형식을 빌려 현대 유럽인의 야만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뛰어난 문화적 이종교배(異種交配)의 사례로 꼽을 만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문화(異文化) 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형태를 넘어선 기능의 새로운 작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전통 계승의 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형태와 기능’이라는 화두는 서구 모던 디자인의 것이지만, 이를 문화 전반에 확대시켜 적용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05.



06.

- 05. 김홍식, 세계는 너의 것 (The World is Yours), 병풍, 2019 ©최범
- 06. 김홍식, 원(Won) 한지 위에 금박과 수채, 먹, 2020 ©최범

리얼리즘으로서의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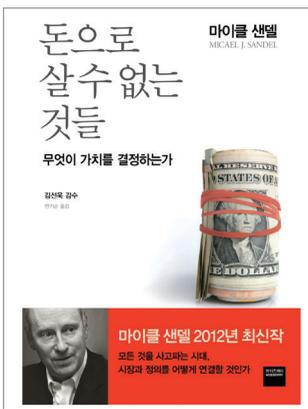
M-203 유탄발사기, 우지 기관단총, 베레타 권총... 화조(花鳥)와 기암괴석 대신에 각종 총기류가 장식되어 있다. 최근 홍대 앞 ‘서드뮤지엄’에서 열린 김홍식 작가의 개인전 ‘Faith’ (10월 10일~11월 8일)에 전시된 병풍 그림이다. 서두에서 인용한 김홍식 교수와 동명이인인 작가 김홍식은 팝 아티스트이다. 작가 김홍식은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한동안 그래픽터 작업에 몰두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팝 아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통에 관심을 갖고 민화와 단청 등을 공부해 왔다. 2017년에 개최한 개인전 ‘별기 위한 기도(Pray for Money)’에서는 옷칠과 금박을 사용한 작업을 선보였고 이번에는 단청과 병풍을 응용한 작품을 보여주었다.

김홍식의 작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선비의 고상한 아취를 담은 병풍과 민중의 진솔한 삶을 드러낸 민화를 흥기로 도배한 그는 전통의 파괴자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김홍식이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그의 작업은 단청과 금박, 옷칠의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8’과 같은 기복적인 숫자, ‘원(Won)’과 같은 화폐 기호 그리고 총기류 등이다.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권력이다. 우리들이 숭배하는 그런 것들 말이다.

그렇다. 김홍식의 작업은 형식에서는 매우 ‘전통적’이지만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현대적’이다. 이것이 그의 작업의 핵심이다. 김홍식에게 단청이나 금박, 옷칠은 전통의 일부, 아니 외형일 뿐이다. 그가 진짜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전통의 외형이 아니라 기능이다.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병풍화나 민화가 사용되던 의미와 맥락 말이다. 그것들은 모두 당대의 욕망을 표현했다. ‘입신양명(立身揚名)’, ‘수복강녕(壽福康寧)’, ‘부귀다남(富貴多男)’ 등이다.

김홍식은 전통미술이 그러한 가치들을 담고 있다면 현대미술은 현대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믿는다. 김홍식은 전통미술의 형식이 아니라 기능을 계승하고자 한다. 전통의 형태적 계승이 아닌 기능적 계승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도달한 것은 흥미롭게도 “그것은 그 시대에 존재해야 한다(Il faut être de son temps)”라는 리얼리즘의 교의이다. 이쯤 되면 놀랍게도 리얼리즘이야말로 전통의 핵심이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욕망에 충실했던 전통미술이 당대의 리얼리즘이라면 현재의 욕망에 충실했던 김홍식의 작업은 현대의 리얼리즘이 된다. 그런 점에서 김홍식의 작업이야말로 현대 민화이자 코리안 팝 아트인 것이다.

글, 사진. 최범(미술평론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의와 도덕

최재원 (JIS 12, 학생기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작가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하버드 최

연소 교수로 임용된 천재 학자이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1982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2012년 샌델 교수가 개설한 market and moral 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강좌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며 그를 일약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의와 도덕을 지켜내려는 지성인의 대표적 인물로 만들어 내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출간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모든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화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한 그의 철학적 고찰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현실에 대한 사례를 많은 자료를 통하여 나열하였다. 인체의 장기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대학교에 엄청난 기부금을 주고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명예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일 혹은 전쟁터에 사람을 고용하는 용병제도와 같은 무거운 예시부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공원에서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티켓을 파는 가벼운 사례까지 다양한 예를 통해 독자들에게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불평등하거나 강압에 의한 거래만 아니라면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도덕적 분야에 속해있는 가치, 즉 명예로운 노벨상 수상, 명문대의 입학, 빈부에 따른 의료차별 또는 공공의 혜택등이 상품화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 사회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샌델 교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확장과 도덕적 영역의 축소가 염려되는 부분들을 제시하였으나, 너무나 아쉽게도 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답은 마지막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 해답은 독자들이 각자 알아서 찾으라는 듯이 그냥 끝나버려 허무했지만 분명 전세계 자본주의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 책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인도네시아 사회와 이 책의 주제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자본주의의 극적인 발전이 없는 개발도상국가이다. 지역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불안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종교를 믿고 있어서 사회의 안정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제시한 사례와 같이 미래에는 인도네시아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도덕적 가치의 상품화, 매매화가 심화 된다면 오랜 역사의 자본주의로 단련된 서양세계와는 달리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현재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기 침체와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들의 솔선수범만이 이 큰 국토와 2억8천만명의 인구 대국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서 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의 행복지수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황톳길의 기억

하연수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 감사)

yshaseolin@gmail.com



몇 해 전, 땅그랑 공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꾸스타’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옛날에 이들이 나타나면 문둥이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고 왕소금을 뿌리는 등 난리를 피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나라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을 무서워하지도, 멀리 쫓아 보내려하지도 않는다. 땅그랑 한센병원 뒤에 모여 사는 과거환자들과 주민들이 이웃해서 별 탈 없이 살고 있다. 경찰이나 보건소 등 해당 관공서에서도 별도 장소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한센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아서, 아니면 인간적 동정심이 더 많아서일까? 운전기사하는 갑자기 창문을 열고 이들에게 동전을 건네주었다. 내가 놀라서 제 정신이냐고 나무라니 여기 돌아다니는 꾸꾸스들은 병균이 ‘우다 꺼링’이라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웃는다. 그리고 현재의 ‘꾸꾸스’들은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는다고 한다. 전문 지식인도 아닌 그저 회사 운전기사가 이렇게 알고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 연민의 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다 더 깊어 보인다.

항상 후진국 사람들이라고 낮춰보았던 내 자만의 성이 모래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 일이 있는 후 오래 잊고 있었던 희망촌이라 불리기도 했던 한센병 공동체가 떠오르곤 했다. 한국의 농어촌 중 가장 부유하고 깨끗했던 한센병 공동체 마을이 있었던 곳이고, 내가 가장 존경했던 의사 선

생님이 계셨던 곳이다. 그곳을 다시 찾아가보고 싶어졌다. 나는 한국을 방문했던 어느 해 늦가을, 보문호 동북 편 길가에서 버스를 내렸다. 멀리서 본 그 언덕에는 그저 노을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언덕 아래 줄지어 있었던 깨끗한 돼지우리들, 긴 창고 같은 단층 숙소 건물들, 완만한 산 경사지에 있었던 양계장, 목장은 흔적도 없고, 공동체 사람들도, 의사 선생님도, 그 분이 꿈꾸었던 작은 희망촌 기념관도, 한센병 환자 시인 한하운 시비 ‘보리피리’도 없었다. 보문호수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할 때, 희망촌을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였다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고 전해진다. 병은 완치되었지만 일그러졌던 그들의 신체 중 손상된 일부의 신체는 다시 복원되지 못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며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는 지워도 되는 역사인지 가슴이 쓰러온다. 내가 친구와 희망촌 공동체 마을로 공의 선생님의 심부름을 가게 된 날은 군 입대를 두어 달 앞 둔, 어느 늦가을 이었다. 곧 입대할 것이라고 인사 하러 온 내게 공의 선생님은 보문호수 북천 희망촌 공동체로 심부름을 보내려했다. 입대를 앞 둔 내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희망촌 심부름은 정말 힘들다는 생각에 선뜻 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한센병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무서운 공동체인 희망촌에 갔다가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 끝이라고 마음속으로 소리 질렀다. 공의 선생님께서는 깃스한 한 쪽 다리를



들어보였다. 어린 시절 내 고막을 치료해 주신 공의 선생님이고, 이 지역에서 육이오 전쟁 중 총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전상자들을 치료해 주는 공의 선생님이었다. 그 전상자들에게 사용할 적절한 약도 내려오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살다 세상을 떠난다고 했다. 이 전상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총상 상처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해 주는 일이 바로 자신의 의무라고 했다. 이들의 상처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외국 원조로 들어 온 희망촌 약들이라고 했다.

공의 선생님은 원조로 받은 수입 약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줄은 알지만 희망촌 의사선생님에게 부탁해 조금씩 받아서 총상상처 악화 저지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한센병 환자용으로 해외에서 후원해 주는 약을 희망촌 밖으로 내 보내 전상자들 치료에 사용한다. 세상에는 이런 사연의 공범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나는 희망촌 심부름을 하기로 했다. 이 순간 나는 이미 약 전달을 담당하는 비밀 조직원 공범이 되었다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물론 그곳의 환자들은 외모는 허

물어져 있어도 모두 완치된 사람들이고, 전염이 없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가기로 했던 것이다. 심부름을 해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그곳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처럼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고향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어렵게 동행을 해주기로 한 친구와 들어서 숲머리 냇물을 건너 코스모스들의 군무를 추는 자갈길을 지나 희망촌 언덕으로 올라갔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물까지 고루 뿌려진 언덕길 양옆으로 붉은 샬비어 꽃들이 가득했다.

언덕길 아래 줄지어 있는 돼지우리에는 하얀 수건으로 머리와 턱을 가린 사람들이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고기, 계란, 야채 등은 새벽에 공동체를 출발해서 분황사 길을 지나 경주시내 잘 사는 집으로 배달되었다. 워낙 품질이 좋고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일반 시장 농축산물보다 값이 훨씬 비싼데도 시내 각 기관장들 집을 비롯해서 부유층들은 희망촌 농축산물 고정고객이 되었다. 공의 선생님이 그려 준 약도를 들고 지형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약도에 표시되어있는 언덕 중간 세 번째



한하운시인



땅그랑한센인촌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다. 혹시 여기서 간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중얼거리며 친구를 잡아당기듯 끌고 멈칫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다. 언뜻 봐도 열 서너 개의 방이 이어져 있는 긴 슬레이트 지붕 숙소 건물이었다. 우리들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슬레이트 지붕 숙소 건물 세 번째 방문이 열리고 약간 마르고 키 큰 남자가 나왔다. 한센병 환자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로, 이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평생 의무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했다

약을 챙겨 전해 준 의사 선생님은 이곳 사람들은 과거 환자들이라서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뜯지 않은 과자봉지를 내 놓았지만 내 손이 쉽게 가지를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완치된 한센병 환자들도 모두 현재 한센병 환자로 생각하고 배척한다고 했다. 이 사회로부터 배척은 대한민국이 가장 심하다고 했다. 한하운 시인은 그 울분을

시로 분출했다며 붉은 글자로 黄土길(황톳길) 제목의 책을 가져와서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저 켈비어 언덕에 시인의 시비를 세워 두고 싶다고 했다. 언덕 위에 올라섰다. 붉은 켈비어 꽃들이 타는 저녁노을을 향해 처절하게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문둥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고 왕소금을 뿌리는 난리는 최소한 이곳 인도네시아 땅인 땅그랑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과거 한센병 환자들을 무서워하지도, 멀리 쫓아 보내려하지도 않는다. 경찰이나 보건소 등 해당 관공서에서도 간섭하지 않는다. 땅그랑 병원 뒤에 살고 있는 이들과 일반 주민들도 서로 이웃해서 탈 없이 살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이들의 외모가 조금 보기 흉해도 이웃해서 살 수도 있는 인간으로 대접 받는다. 문화적 정서 차이일까?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민 사이에 ‘인간애(人間愛)’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 같다는 깊은 상념에 젖어본다.

겨울 소나무

시인 김우재

심산유곡에 노송이
뿌리 깊이 내려

북풍설한(北風雪漠)에도
늡늡한 자태 보여 주네

세차게 부는 혹한(酷寒)에도
푸르디 푸른 솔잎은
하얗게 하얗게
흰 눈이 소복히 쌓이면
마침내 설화(雪花)가 되네

온 누리가 하얗게 덮이면
모양새는 청렴한데

그 속내는 얼마나 세파에
오염 됐나 알 수 없어라

아무리 속세에 썩어갈지언정
절개 지키는 장수같이
너 큰 소나무는
어찌하여 늘 푸르른가

보이지 않는 그 녀의 속내는
노송같이 깨끗해서
흄없으면 좋겠네

[시작노트]

겨울에 산행을 하다가 소나무와 흰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보게 되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COVID-19 시대를 살고있는 요즘 어려운 현실이 눈 덮인 겨울 소나무와 대조가 되어 보였다. 과연 저 흰 눈 덮인 소나무처럼 세상도 순결할까 생각해 본다.



개정 근로기준법(3)

(전호에서 계속)

2020년 11월 2일 발효한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 11 호는 수많은 시행령 제정을 의무화 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주에 45개의 정부령과 4개의 대통령령을 고용창출법의 시행령으로 공포했다. 49개 시행령 중에 노동 분야 정부령은, i).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 34 호, ii). 기한부 고용계약, 아울소싱, 근로시간, 고용관계 및 휴식 시간 및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 35 호, iii).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 36 호 및 iv). 실업 사회보장보험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 37 호, 이상 4가지이다. 지난 호에서 개정 근로기준법(2)으로 기한부 고용계약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원칙만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나 새로 발효한 정부령에 따라 더 자세한 실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설명한다.

5. 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고용계약은 기한부 고용계약 아니면 무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둘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한인동포들은 통상 기한부 고용계약(PKWT)은 계약직이라고 호칭하고 무기한부 고용계약(PKWTT)은 정규직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5.1. 기한부 고용계약은 작업의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에 따라 특정 시간 내에 완료되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만 체결할 수 있다.

5.2. 고정적으로 하는 일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정부령 제4조 2항)

*한시성이 없는 일반 생산 직원 혹은 사무실 직원에 대한 기한부 고용계약은 적법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바뀐다.

5.3. 기한부고용계약을 할수 있는 일

5.3.1.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5.3.2. 계절성 작업

5.3.3.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활동 또는 아직 시험 또는 조사중인 추가 제품과 관련된 작업

5.3.4.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작업

5.4.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 허용 기간 : 최장 5년

5.5. 기한부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 연장이 가능하나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예” 처음 3년 + 연장 2년 = 최장 5년)

5.6.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된 일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은 일이 완료되는 날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결된다.

5.7. 일의 종류나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에 출근에 기준에서 기한부 고용계약(*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미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은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5.7.1. 한 달 근무일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5.7.2. 계속 3달 이상 출근하는 경우

5.8.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5.9. 단체근로계약으로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5.9.1. 사용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5.9.2.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작업 내역 및 임금액

5.9.3.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에 부보시켜야 한다.

5.10.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견습기간을 두지 못한다. 견습기간을 두면 원천 무효이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다.

5.11. 기한부 고용계약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5.11.1. 사용자/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업종
- 5.11.2.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및 주소
- 5.11.3. 근로자의 직책 혹은 직무, 근무지, 임금액 및 임금 지급방법
- 5.11.4. 사용자/회사의 권리와 의무
- 5.11.5.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5.11.6. 기한부 고용계약 발효일 및 기간
- 5.11.7.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일 및 장소,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

5.12. 기한부 고용계약은 온라인으로는 체결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관할노동국에 등록해야한다.

5.13. 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최소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 5.13.1. 계속 12개월 근무자 : 1개월 급여(*기본급여 + 고정 수당) = 퇴직금
- 5.13.2.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x 1달 급여액 % 12 개월 = 퇴직금
- 5.13.3. 12개월 이상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x 1달 급여액 % 12 개월 = 퇴직금

5.13.4. 영세기업 및 소 사업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서 종료 시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위 공식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13.5. 기한부 고용계약서 만기 이전에 근로자 혹은 사용자/회사가 기한부고용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이미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하여 위 공식대로 지급한다.

5.13.6. 기한부 고용계약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

5.14. 이 정부령 공포시 유효한 기한부 고용계약서는 기한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기간까지 계속 유효하다.

5.15. 위와 같은 경우에 기한부 고용계약 퇴직금은 이 정부령 발효일부턴 발생한다. 이 정부령 발효 이전 근무기간은 기한부 고용계약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5.16. 기한부 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라틴 문자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5.17. 기한부 고용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이중언어로 체결한 경우 둘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고용계약서가 외국어 고용계약서에 우선한다.

(다음 호에 계속)



꿈은 언제나 꿀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나의 아버지는 유전 공학자가 되고 싶으셨다. 지금의 생명공학자와 같은 직업인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아버지와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는 토마토와 감자가 같이 자라는 ‘포마토’를 텔레비전에서 본 후 유전 공학자가 되기로 마음 먹으신 거다. 운이 좋게도 아버지의 이모와 이모부께서 화학 박사이셨다. 아버지가 그 분들에게 유전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 이모가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와 할머니의 반대로 아버지의 해외 유학은 물거품이 되었다. 포크레인 기술자였던 할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잦은 이유였다. 그후 중학생이 된 아버지는 할머니의 권유로 선생님을 꿈 꾸게 되었다. 역사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아버지는 국어 선생님을 선택하셨다. 지금 아버지는 교직생활 잘 마무리하신 뒤 여행을 다니고 싶어하신다. 여행 동안 느낀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여행 프로그램을 찍고 싶어 하신다.



기네스북에 오른 학교 출신

어린 시절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것은 독산동에서 슈퍼마켓을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산을 넘어 초등학교에 가던 기억이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흥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버지는 유명한 문창 초등학교로 옮겨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전세계에서 제일 많아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한 학교이다. 항공모함처럼 커다란 운동장 두 개에 12,000명이 나 되는 학생이 조화를 서던 풍경이 잊혀지지 않는다니. 소풍과 체육대회는 3일에 걸쳐 두 학년씩 나눠서 했다고 한다. 참고로 12,000명이라는 숫자는 각 학년에 한 반이 백 명으로 이루어진 스무 개의 반이 있을 때 가능한 숫자이다. “오전반에 배정받았던 나는 늦잠을 실컷 자고 싶어서 오후 반 아이들을 부러워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반짝였다.

인생에 한 번뿐인 학창 시절

학창 시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바로 그 학창 시절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과목은 국어와 역사이다. 참고로 역사 공부를 하실 때는 책을 다 외워서 친구들과 그걸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가 가장 기억나는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이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사람이 많은 문창 초등학교로 전학 가신 후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장 기억나는 이유는 물론 같이 자주 공부를 하기도 했고 친했지만 아버지와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하루 그 친구가 보고 싶어져서 그 친구 집에 가보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이사를 갔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자서전을 제가 써 드려요~
JIKS의 부모님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지도: 이영미)

다른 날에 다시 한 번 혹시 몰라 갔다 허탕치고 오는 길에 그 친구도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허탕 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이런 소설 같은 내용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의 담임 선생님이시다. 이 담임 선생님은 아버지가 반에서 5등 전체에서 40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5에 40을 곱해서 200대를 때리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느 한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그 교실에 칠판을 직접 설치해 주시기도 한 선생님이시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부장

아버지를 가장 힘들고 지치게 했던 것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과 부장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입시는 순수 교육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원래는 시험을 봐도 아는 것은 쓰고 모르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고 본다. 하지만 입시에서 모르는 것은 찍어서 맞추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현실에 과연 찍어서 맞추는 것이 교육적일까 라는 의문과 함께 교육은 교육답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상과 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과연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이 필요할까? 일부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힘들 때 가장 힘을 주는 것은 가족이지 싶다.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아버지에게 힘이 되었다. 입시결과가 좋아 동료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치유제를 얻은 듯 힘이 난다고 한다. 간혹 아버지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연락이 오면 무뚝뚝한 나의 아버지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당당한 남씨 일가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포크레인 기술자셨다. 이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서 댁에 잘 계시지 않으셨다. 또한 함께 계실 때도 말은 많지 않으셨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래도 평소 많은 시간 동안 세 자녀를 혼자 키우시다 보니 매우 원칙적이셨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피해가 되는 것을 싫어하셨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셨다. 아마 다른 사람이 절대 아버지의 가족을 깔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매우 엄격하고 고지식한 분이셨다.

나의 소중한 두 아들에게

“높은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거라.”

아버지는 나와 형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사람. 온 누리에 가득 찬 빛, 즉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길 바라신다. 아버지가 형과 내 이름을 ‘누리’와 ‘찬빛’으로 지으신 이유다. 그러려면 능력을 최고치로 높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빼먹지 않으신다. 실제로 아버지는 이런 이유로 형에게 환경 공학과를 추천하셨다.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매일 고민한다.



권태현(Springfield, G5) & 권소연(Springfield, G7)

찐남매가 간다

권태현 (취미: 축구, 관심사: 게임 브롤 스타즈)

권소연 (취미 애니, 웹툰 보기, 관심사: 역사)



V를 사랑하는 가족

#남자의향기

#샤방샤방 #숙녀모드

#언니오빠같은엄빠 #행복은

#일상다반사 #50세아빠생일은덤



♥ 💬 📍 좋아요 2383



2021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1.1.28. ~ 2.24.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3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	2020-2021
4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5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6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7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2020
8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000	2020
9	이사	이강현	P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1,000	2020
10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2020

2021 개인희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1	이국청	300,000	
2	정민수	300,000	
3	김재정	300,000	
4	최상직	600,000	2021-2022
5	김성진	300,000	
6	송판원	300,000	2020
7	최석일	300,000	
8	김주형	1,000,000	
9	강희중	300,000	
10	고영철	300,000	
11	백형균	300,000	
12	최임선	300,000	
13	송광종	300,000	
14	이정휴	300,000	
15	최덕열	600,000	2020-2021
16	이준호	300,000	
17	이완호	300,000	
18	이주연	300,000	
19	이균진	300,000	
20	이소임	300,000	
21	김봉수	300,000	
22	안창섭	300,000	
23	장수봉	300,000	2020
24	최성현	300,000	
25	이순형	300,000	
26	김경우	300,000	
27	양석모	300,000	
28	최민	300,000	
29	최상직	1,400,000	기부금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30	박영곤	300,000	
31	김슬기	300,000	
32	한미혜	300,000	
33	이은진	300,000	
34	김재구	300,000	
35	조용완	300,000	
36	홍석영	300,000	
37	채만용	300,000	
38	구종율	300,000	
39	황성현	300,000	
40	정연오	300,000	
41	정진주	300,000	
42	김노식	300,000	
43	임성국	300,000	
44	이경복	300,000	
45	권구학	300,000	
46	김주열	300,000	
47	박정은	300,000	
48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	2,000,000	기부금
49	박혜윤	300,000	
50	김병호	300,000	
51	강호성	600,000	2020-2021
52	김영율	300,000	
53	조용재	300,000	
54	김창근	300,000	
55	김대근	300,000	
56	김혜진	300,000	
57	최인실	300,000	

INTERVIEW
DI JALAN

Wahes Syaibara Lon
URENG Korea di Indonesia
Seulamat (tudep aman
dan bahagia

Joko

반쫐란 어르신 잉꼬 부부 Mr. & Mrs. Panglima (70세 & 60세 / 아체 출신)

반쫐란에 1998년부터 살고 있어요. 내가 중앙은행 아체 근무할 당시 그곳 통계청(BPS)에서 일하는 집사람을 만나 프로포즈하고 1982년에 결혼했어요.

70 인생 중 슬프고 기쁜일이라...?

아이가 셋인데 큰애가 대학생일 때 아체 쓰나미로... 그리고 집사람도 가족을 7명이나 잃었어요.

우리 둘다 거의 1년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흠~ 그리고 기쁘고 잘한 일이라면... 역시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게 아닐까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앞으로 인생이요?

애들을 위해 이제 코로나 백신도 먼저 맞고 (시험대상)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평안하고 싶어요.

연금이요...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해 둘이 합해 천사백만 정도 받고 2006년 정년 퇴직 후 지금까지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아체를 꼭 방문하세요.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특히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체 커피, 누들 그리고 과일 람부탄은 역시 아체가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체어로 인삿말을 적어 주심)

지금까지 26회 현장인터뷰를 진행하신 황윤홍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98 6112
(공항).....021)5591 3229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문의.....021)57986555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50개국 해외송금 핀테크
센트비를 만나보세요!

- ① 5분만에 실시간 한국송금
- ② 싱가포르·한국 정부 공인 서비스
- ③ 수수료 100% 무료 이벤트!

해외송금 5분컷-!



지금 바로 네이버에 **SENTBE**를 검색해보세요!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헌)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안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경관조명
간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021) 2245 587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o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던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증거속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분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등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본점 722 2214
 끌라빠가딩점 021 723 3214
 무궁화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짚레곤점 054-987 1049
 무궁화반동점 028-8200 1674
 무궁화죽자점 0815 4880 0256
 무궁화마카사르점 0811 460 67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김삿갓	722 2230	산들	5579 5821
대가	8459 2871	상하이	5573 5550
대감집	723 3315	산해진미	5577 8182
대화	720 6091	서울일식	546 0840
락	5793 9211	아리수	0254-781 0059
마포	7279 2479	알리사	0254-60 1430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명가면옥	0254-849 3571	우리들	552 4047
면의전설	521 0230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명가면옥	2751 0800	종가레스토랑	551 3273
미가	0818 85 8026	청기와	0858 1377 3388
미스터 박	5140 1142	체어맨	5577 8585
버카시 서울	8895 7604	태능갈비	7055 0888
베다니1호점	9318 0458	테라스 가든	8493 9321
베이징	0254-837 0242	한마당	5577 6770
보신명가	789 022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본가	739 6229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 까북	3005 1650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요리가	4584 4502
설악추어탕2(꿀라빠가딩점)	2937 5435	유가네	2221 3392
소래포구	8990 5051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아랑22	5140 1245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 신문	
청기와	726 1924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조선일보	2930 6886
청해수산	527 8721	중앙일보	7590 8308
토박	725 1135	한국일보	769 1081
하누	725 5042	한인포스트	4586 9199
한강가든	0813 1988 5751	JAKARTA POST	530 0476
한양가든	2751 7370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 안경원	
강산	2452 0569	시티안경원	726 5009
감닭	4584 5837	● 여행사	
다미	4585 0040	나래여행	5296 0749
대장금	0816 885 956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굿데이투어	4586 0598
명가면옥	8990 4552	그린관광	798 332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Red Cap	5797 3397
미추홀	6583 1472	Rodem Tour	4587 8833
산정(찌까랑)	2909 3454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땅그랑)	547 3172	부미관광	7279 0011
서울	4585 4454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설악추어탕	2937 5435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아래향	4584 8476	스카이투어	391 1381
황금밥상	4585 3402	우리투어	7918 4239
감미옥	5579 4612	153 TOUR	5720 153
강나루	5576 8222	코리아트레블	230 3116
강촌	5579 3681	코인관광	720 7230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하나관광	520 2450
대가야	547 5511	호산여행사	691 3602
명가면옥	552 2745	HAPPY TOUR	2950 890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샘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짜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짜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이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0. 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춘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百年顧客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팔레스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골프 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헬스장,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 자바팔레스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이크 제공 (사전 예약 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